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월 27일)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성보박물관 숙원 사업 학예인력 충원 본격화

불교중앙博 · 문화재청, '다량소장처 인력배치 사업' 시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성보박물관과 수장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학예인력이다. 일반 사립박물관과 달리 영세한 사찰 성보박물관은 전문 학예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찰 성보박물관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전문 학예 인력 강화가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은 '거점 다량소장처 학예인력 배치 사업'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최근 운영기관을 확정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거점 다량소장처 학예인력 배치 사업' 은 문화재청을 통해 국고 2억 6000만원이 투입돼 진행되며, 학예사 8명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공모를 통해서는 4개 권역, 8개 운영기관이 선정됐다. 서울 · 경기 · 강원 권역에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충청 권역에는 수덕사 성보박물관이 이름을 올렸다.

국고 2억 6천만원 지원 받아
4개권역 8개 기관 인력 배치
사찰박물관 · 수장고 등 관리
문화재청 지원 정책 새 전기
스님 학예사들 양성도 '첫 발'

전라 권역에는 화엄사 성보박물관과 송광사 성보박물관이, 경상 권역에는 쌍계사 성보박물관 · 해인사 성보박물관 · 동화사 성보박물관 ·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운영기관들은 향후 사업 지원을 통해 전문 학예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이들은 권역 내 본 · 말사 성보박물관 · 수장고와 문중, 고택 등 문화재 다량소장처 3~4곳의 보존 관리, 전시 업무, 교육, 유물 전산 등록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같은 권역별 학예 인력 배치는 문화재 다량소장처의 인력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문화재 다량소장처에 등록된 성보박물관 · 사찰 보장각 47곳 중 30곳에 전문 학예 인력이 배치되고 있지 않았다. 일반 관리 인력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들은 비전문가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돼 유물 목록조차 없어서 도난과 망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권역별로 전문 학예 인력이 배치되면 일상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문화재 다량소장처 수장 환경과 보존 · 관리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항온항습시설같이 관련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이를 관리 · 운영할 전문 학예 인력"이라면서 "사찰 재정 상 전문 학예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사업으로 성보박물관 등 문화재 다량소장처의 학예 인력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보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재 다량소장처에 대한 전문 학예 인력 배치는 문화재청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로도 평가된다. 그간 문화재청은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다량소장처 지원사업' 을 통해 다량소장처의 시설 운영 전기료 · 시설 점검 · 유물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해왔지만, 어디까지나 시설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전문 학예 인력 배치가 처음 시행되면서 성보박물관 등 다량소장처 문화재 관리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투입된 것이다.

향후 불교중앙박물관은 권역별 학예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교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인력 배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앞으로 20명 정도의 학예 인력을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찰과 문중 소장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중앙승가대와 함께 스님 전문 학예 인력 양성에도 나섰다. 두 기관은 지난 2019년 학술 연구와 교육을 위한 MOU를 채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중앙승가대가 추천한 문화재 전공자 효찬, 도공 스님이 3월부터 불교중앙박물관 인턴(교육실습생)으로 활동하게 됐다. 학예사 자격을 위해서는 불교중앙박물관과 같은 경력인증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필수여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습은 스님 학예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범어사 태극기 호국불교의 산실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이 3.1절 102주년을 맞아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태극기를 나누어 들었다. 3월 1일 국가보훈처 지정시설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열린 '제102회 3.1독립 만세운동 기념식' 에서 참여대중은 그날의 함성과 울분을 되새기며 뜨겁게 '대한독립' 을 외쳤다.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신자 배가운동 '수미산 원정대' 출범

상월결사 자승 스님 주축
2월 27일 봉은사서 발대식

상월결사 대중포교 연결선상
불교신자 배가운동 본격전개
교육과 신행장려로 불심 증장
5월 교육시작, 8월 수계 예정



상월결사는 2월 2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불교신자 배가운동인 '수미산 원정대' 발대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미산원정대로 참여한 불자대중들이 힘찬 서원을 하고 있는 모습.

2000만 불교 교세를 회복하기 위한 불교신자 배가운동 '수미산 원정대' 가 출범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2월 2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불교신자 배가운동인 '수미산 원정대' 발대식을 봉행하고, 불교중흥 실천에 나섰다.

수미산 원정대의 수미산은 불교에서 우주와 세상의 중심인 거대한 산이다. 수미산 원정대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2019년 위례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서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는 게송으로 남긴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삶 현장이 수미산이며 불국정토임을 깨닫고 믿어 불교중흥을 이루자'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미산 원정대는 정치, 경제, 문화, 연예, 스포츠 등에서의 중심 불자로 구성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봉은사 총무국장 탄원 스님, 봉은사 기획국장 효신 스님 등 스님들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기흥 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대한체육회장),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前 국회정각회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유정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종립학교 동국대에서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 총장, 황순일 불교대학장, 김용현 사회과학대학장, 윤재웅 다르마칼리지학장, 차승재 교수, 신영섭 교수 등과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 구본일 BTN불교TV 사장, 오계윤 아나운서 등 사부대중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원정대 발족에 앞서 불교 교세 쇠락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중흥을 위한 불교신자 배가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예전에는 불자가 2000만 불자였는데, 세월이 지나자 1500만 불자라고 했다. 총무원장을 할 때는 1000만 불자였고, 임기가 끝날 때 쯤엔 700여 만 불자라고 조사결과 나왔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300만 불자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불자 감소의 원인을 보면 인구감소, 종교편향, 스님들의 무관심 등이 있다.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불교가 가라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본인이 경험한 일화를 이야기했다. 스님은 "1984년 수원포교당 주지로 있을 당시에 총무원 국장 소임도 맡아 전철로 출퇴근을 했다. 그런데 1주일에 두세번은 '불신지옥' 이라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들을 만나곤 했다"며 "그때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몰상식' 한 것으로만 취급했다. 몇 년 전 교황님이 오셨을 때 명동성당에 간 적이 있다. 이 때도 하나님 믿으라고 수차례 들었다. 이때는 놀랐다. 불교가 왜 신도가 줄어드는지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교는 '오면 오고, 가면 가는' 수준으로 신도들을 대한다. 여기에 불자분들이 모였지만 과연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에게 훌륭한 불교를 믿어보라고 권하고, 몇 명이나 불교와 인연을 맺어 줬는지 돌아보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수미산 원정대는 불교가 침몰하는 배라면 그 속도를 늦춰보자는 취지다. 불자 한명 한명이 새로운 이들이 불교와 인연 맺는 데 최상의 노력을 해보자는 의지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미산 원정대는 크게 교육과 수행으로 불자배가운동을 진행한다. 5월 개강 후 주 2회로 총 12회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도반알기, 불자들의 자세와 예절 배우기 등 불교상식과 교리 교육을 비롯해 8월 2박 3일 수행 이후 수계식이 진행된다.

이날 첫 발대식에서는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의 '상월결사와 불교의 지혜', 신영섭 동국대 교수의 '감동있는 불교로의 인연' 강연이 진행됐다. 황순일 불교대학장은 "선정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불교"를 강조했으며, 신영섭 교수는 "감동을 위한 수행테인먼트, 신명나는 템플테인먼트" 등 방안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당신의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동련은
어린이·청소년 **인성과 희망**을 키웁니다.
지혜·자비 바탕을 키웁니다.
내일 인재 **참 불자**를 키웁니다.

–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인성, 마음행복 프로그램
– 학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지도자를 위한 전문 교육
– 어린이·청소년 활동 지원 및 상담

• **후원계좌**(예금주 : 사단법인 동련)
부산은행 140-01-002189-8 농협 301-0278-6185-41

어린이 · 청소년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증명	정관 혜총
고문	정여 철오 지현
총재	지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부총재	운성 덕진 지광 심산 성행
추진위원장	신공(이사장)
추진부위원장	정무(상임이사)
추진위원	도제 탄경 혜타 지우 능후 효산 명원 현수 혜성
사무총장	미수
지역후원관리	김미경 김상희 김용숙 박영우 신현임 조현주

사업부 최미선 지원부 이현미 홍보부 손무늬 모금부 박소정

사단법인 동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48번길 22 세인빌딩 3층
Tel (051) 864-4569 Fax (051) 864-4665
www.dongryun.net

조계종, 선암사 '정체성 회복' 전방위 대응 나선다

3월 3일 대책위 상임위 1차 회의서 결의

대법원 판결 관련 현안 공유
조직 구성 · 활동계획 구체화
사법부 판결 규탄 본격 착수
선암사 본사 지위 회복 추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이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 뿐 아니라 그간 자제해 온 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3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책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정문, 호계원장 무상,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지홍,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 임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집행부 부실장 스님 등 종단 주요소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선암사 주지 금곡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의 경과보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인사말,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논의, 입장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스님들은 대책위 명칭을 '(가칭)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대책위원회(조계종선암사 대책위)'로 정하고, 향후 대책위를 중심으로 종단적 역량을 결집해 법적 대응과 종단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대응은 물론 조계종 선암사의 종단적 지위 회복 및 실체적 지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조직은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를 증명으로 모신 가운데, 원로회의 의장 및 원로의원을 지도위원으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책위원장으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신도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키로 했다.


조계종은 3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책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임원 및 호남지역 본사 주지, 중앙종회 임원 등 25명을 중심으로 한 상임대책위원회를 꾸려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며, 금곡 스님을 집행위원장으로 한 집행위원회와 각 기관 실무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별도로 꾸릴 방침이다. 180여명 규모의 대책위원회 전체 구성은 상임대책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조계종 선암사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적으로 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형태로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직할교구 소속인 선암사를 다시 교구본사 지위로 회복하는 한편, 중앙종회 등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선암사에 한해 제적교구본사 중복 취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암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화결사단 조직도 논의됐으며,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 성명 및 입장문 발표 행보를 조직화하고 전국 주요사찰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법원의 선암사 판결을 강력 규탄하는 입장문도 채택했다.

조계종 선암사 대책위는 이날 '위법망구의 자세로 정법을 바로세우겠습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채택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명맥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공표했다.

특히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 "차체험관 철거소송 주심을 맡아 처리한 대법관과 해당 대법관의 임명을 추진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태고종 선암사가 제기한 등기말소소송의 1심 재판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조계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재판부 구성에 따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조계종은 1962년 출범 당시 한국불교 역사와 수행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과감히 벗어던진 청정교단으로 국가가 인정한 유일무이한 종단이었다"며 "이러한 종단의 정체성 지난 시간동안 조금씩 국가의 시책으로 위협받고 급기야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본 판결은 한국불교를 다시금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이기에 소명을 받은 소임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차체험관 철거소송'의 심리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의 변론기일은 4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원행 스님, "사찰 종부세 등 현안 살펴야"

3월 3일 조현래 종무실장 예방서
전사법 취지 역행 법령 검토 요청


문화관광체육부 조현래 신임 종무실장은 3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전통사찰의 역사성과 공적 역할을 배제한 일부 현행법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가운데, 2022년부터 전통사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교계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문화관광체육부 조현래 신임 종무실장에게 "전통사찰보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법령들에 대해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3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현래 신임종무실장의 예방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언급하며 "전통사찰의 역사성을 배제한 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특히 "전통사찰의 경우 오랜 역사만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럼에도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2년부터 전통사찰까지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전통사찰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지만 현행법과 정책대로라면 그 취지가 무색한 것을 물론, 수행환경을 오히려 침해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며 "서로 잘 협의해서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실장 삼혜 스님과 만당 스님도 "종단 차원에서 전통사찰 등과 관련한 국가법령제개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국가법령제개정위원장 만당 스님(중앙종회 부의장) 등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도반, 불교달력 사진 공모전

3월 3일~4월 9일 접수
2022년 달력제작 활용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불교달력 제작에 활용될 사진과 작품을 공모한다.

조계종 ㈜도반유통 달력사업부는 3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조계종 2022년도 불교달력 사진 및 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도반유통이 제작·판매해 온 불교달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제작 수준을 보다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사찰의 아름다움과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신청기준은 사계절을 담은 사진과 작품, 사찰 및 불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진과 작품이다. 미술작품은 수채화, 유화, 수묵화, 펜화, 캘리그라피, 일러스트 등이며, 시화나 시집, 좋은 글귀 등 문학작품도 출품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유롭게 테마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달력 제작 용인만큼 한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테마당 6~12컷, 사계절 구성의 사진과 작품을 출품할 경우 선정 확률이 높다.

대상은 테마 12컷 기준 상금 350만원, 금상은 테마 12컷 기준 250만원, 은상은 테마 12컷 기준 200만원, 6컷 기준 100만원이다. 동상은 태마 12컷 기준 100만원, 테마 6컷 기준 50만원이 상금으로 전달된다. 입선작은 컷당 별도 지급된다.

도반유통측은 "도반 달력사업부는 매년 품격높은 작품을 선별해 다양한 테마의 기성달력을 전국사찰에 제작·납품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높이고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인만큼, 사찰 홍보와 포교활동은 물론, 작가들의 작품활동과 홍보에도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마주협, 미얀마 군부에 "강경탄압 중단" 촉구

3월 3일 입장문 발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사태가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호산, 이하 마주협)가 미얀마 군부에 강경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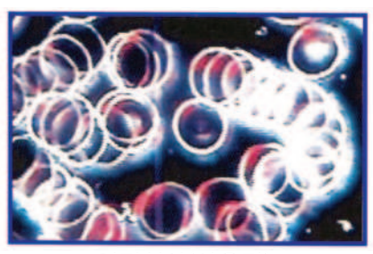
조계종 마주협은 3월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는 군부 쿠데타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 커다란 희생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이미 자리 잡은 민주화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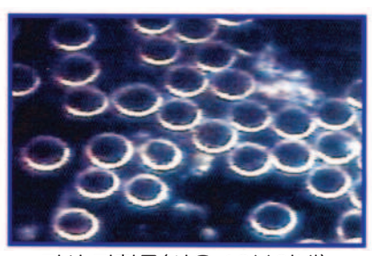
이에 마주협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정부 지도자들의 즉각 석방과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 △법적으로 선출된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것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무력진압 중단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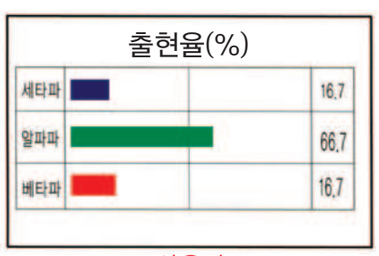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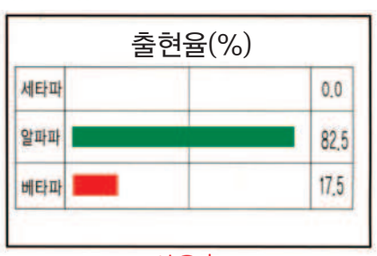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를 해주면 축농증, 비염 완화 및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카카오 · 해피콘 등 SNS 활용한 모금 확대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코로나기간 비대면 활용넘어
영상, 후기전달 등 장점많아
모바일전문가 양성 교육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최근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부플랫폼이 활성화 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양극화 속에서 최근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졌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에서 SNS를 활용해 시작된 아이스버킷챌린지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꽃피웠다. 아이스버킷챌린지는 근육이 수축하는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그 영상을 SNS에 올려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거나 루게릭병협회에 100달러를 기부하는 형식이었다. 당시 SNS를 타고 수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아이스버킷챌린지가 SNS를 통해 확산된 것은 영상과 사진 등 대면 방식을 통해 전하지 못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점이 랜선을 통해 발휘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기간 대면 접촉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는 것으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랜선 기부다. 불교계 랜선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 등 기존 기부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와 기존에 활성화된 랜선기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랜선기부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 해피빈이 대표적이다. 해피빈의 경우 기부금 사용계획과 기대 효과 등을 명시하고, 집행하는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장점이다. 예전에는 네이버 콩이라는 기부를 위한 별도의 결제수단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와 연계된 네이버페이 등 결제가 편리해졌다.


불교계에서도 SNS를 활용한 모금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경우 2010년 개설 이후 1억 8399만원을 모금했다. 지구촌공생회도 2005년부터 해피빈을 통해 총 4527만여원을 모금했고, 로터스월드 또한 2009년부터 1949만여원을 모집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후원참여' 를 2008년부터 진행해 지금까지 총 1992만 여원을 모금했으며, 천태종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천태종복지재단 응원 기부를 받아 지금까지 총 783만여원을 모금했다.

이 같은 플랫폼 활용은 대면 기부에 비해 공감대 형성이 장점이다. 사진과 영상 뿐만 아니라 후원참여 후기 등도 또 다른 기부 독려요소가 된다.

아름다운동행이 2014년부터 8년간 진행 중인 '탄자니아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젝트 해피콘(Happy corn)' 을 보면 현지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부터 이를 후원한 기부자들의 응원메시지 등을 볼 수 있다. 1월 해피콘의 경우 318명이 기부에 참여해 200여만원을 모금했다.

아름다운동행 유미란 팀장은 "온라인 모바일 기부의 경우 소액 일반기부인 것이 특징이며, 광범위한 모금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며 "형식을 떠나 기부프로젝트에 대한 의미나 진행상황 등을 전하기 쉬운 장점을 활용해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랜선기부의 장점이 부각되는 최근에는 네이버 해피빈을 롤모델로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된 '카카오 같이가치' 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자양종합복지재단, 나눔의집, 조계종 문수사 등이 카카오 같이가치에 프로젝트를 개설한 상태다.

카카오 같이가치의 경우 네이버 해피빈에 비해 카카오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을 통한 소식도 받을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소셜펀치, 와디즈와 같은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유튜브 채널을 통한 기부모연 등도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방식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세대를 넘어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정보전달력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시대적 흐름 속에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모금 전문가 양성과 함께 근본적으로 고령화된 불자들이 디지털, 랜선기부에 접근하는 디지털 에이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코로나 의료인 '무료 템플스테이'

불교문화사업단, 3~12월 시행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운영
동반 1인까지 무료 지원 가능

지난해 많은 호응이 있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방역관계자 등을 위한 토닥토닥 · 쓰담쓰담 템플스테이가 올해에도 이어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 단장 원경)은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방역 관계자, 여행업계 및 문화예술 관계자 등에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 지원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이 진행하는 휴식형 무료 템플스테이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연중 이뤄지며, 신청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처음 선보인 토닥토닥 및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올해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에 최대 3박 4일간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 지원한다.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행업계 관계자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계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대 1박 2일간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 제공한다.

토닥토닥 · 쓰담쓰담 템플스테이 모두 동반 1인까지 무료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신청하려면 코로나19 대응 근무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병원 등으로부터 받아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 근무자는 재직 증명서로 증빙 가능하다.

쓰담쓰담 템플스테이의 경우 소기업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여행이나 관광업계 관련 자격증, 예술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심리적 힘듦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익 템플스테이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산사에서의 휴식으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종단 교육체계도 안정화

3월 2일 68명 졸업생 배출
3일 중앙승가강원 입합식도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종립 동방불교대학 제36 · 37회 졸업생 68명을 배출한데 이어, 중앙승가강원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는 그동안 종단 내홍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종단 교육체계가 안정됐음을 드러내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이사장 호명)은 3월 2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36회 · 37회 졸업식을 진행했다. 36회 졸업생은 불교학과 26명과 범패학과 4명 총 30명이며 37회 졸업생은 불교학과 31명, 범패학과 7명 등 38명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2018년도 입학생들과 2019년 전기 입학생들로 2년간의 학문 연마과정을 거쳐 소정의 졸업 학점 이수와 함께 졸업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이다. 특히 2018년도 입학생들은 지난해 2월 졸업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졸업식을 연기하고 졸업장은 사전 우편으로 발송했다.



3월 2일 동방불교대학 졸업식 모습.

한편 태고종은 3월 3일 2021학년도 중앙승가강원 입학식을 진행했다. 올해 입학생은 대교과 10명, 사교과 12명이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날 입학식에서 대교과 강주 화엄 스님과 사교과 강주 도종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하고 종단의 동량 교육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안심정사, '안심승신불학원' 첫 가동

서울도량, 3월 9일 입학식
스님 · 전법사 위한 전문교육

모든 스님과 전법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양은 물론, 기도와 신행, 의식 집전 등 총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이 본격 가동된다. 안심정사가 추진해 온 '안심승신불학원' 이 올 3월 문을 열고 불교전문교육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전망이다.

안심정사(회주 법안)는 스님과 전법사 대상 전문교육기관 '안심승신불학원' 을 설립하고 제1기 사찰운영지도자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안심승신불학원은 회주 법안 스님의 교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스님과 전법사들에게 대승불교 정통교리와 사찰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동안 태고종이 배출한 스님과 전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태고종 소속 스님과 전법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태고종 소속이 아니더라도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로, 현장 강의 및 코로나19 사태를 염두에 둔 비대면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을 승신불학원장으로,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철학박사)과 범패 · 작법무 예능보유자 능화 스님, 군산대평생교육원 역학전담교수 송월 스님 등이 강사로 대거 참여했다.

정규교과목은 법안 스님의 '사찰운영 및 상담비법' , 능화 스님의 '실용불공 의식' , 양청운 박사의 '행복불교학' , 범천법사의 '대승불교 교학체계 연구' 이며 매월 1회 신행실수 교육이 진행된다. 특강교과목은 법담 스님의 '대승교학 · 경전 강독' , 송월 스님의 '불교상담학(역학)' , 이현정 박사의 '불교스피치 · 설법방법' , 도원 스님의 '불교문화와 명리학의 이해' , 도명 스님의 '비교종교학과 기도스피치' 등으로 구성됐다.

3월 9일 안심정사 서울도량에서 입학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1학기는 3월 16일~7월 6일까지, 2학기는 9월 7일~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된다. 등록금은 1학기 50만원이며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010-2142-4557

송지희 기자

처음 펼쳐보고 밤새워 노래(頌)를 짓다.



백봉 김기추 강송 | 312쪽 | 양장 | 18,000원

"산에서 내려와 보니 조그마한 금강경이 있어요. 번역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어려운지!
그런데 대강 보니 굉장한 책이라!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데. 반야바라밀다니 뭣이니 전혀 몰랐죠.
한데 가만 보니 '대강 이 말이다' 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게송(偈頌)을 달아봤습니다.
게송을 달기 위해서 단 것도 아닙니다, 재미로 달았습니다.
전부 달고 나니 새벽 4시 15분 전이에요. 그 때 책을 낸다느니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책이란 학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무식쟁이가 어떻게 책을 낼 겁니까?"

〈저자, 1982.7〉

1976년에 출간한 4판을 현대 감각에 맞추어 재 편집

거사 생존시의 최종 판인 1976년판은 한자를 많이 써서 한글세대가 해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곳곳에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어 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분적으로 문장이나 단어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한글화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하였고 한글세대에게 낯선 어투도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바꾸지 않았다.


눈을 부릅뜨고 와 귀를 가리고 가다
백봉 김기추 거사 일대기
최운초 지음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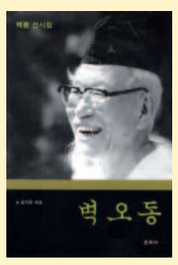
공겁인1, 2
백봉 거사를 모시고 치열하게 수행을 한 제자들의 수행이야기와 백봉 거사와 인연이 깊었던 스님들의 인연 이야기가 들어 있다.
최운초 지음 | 각권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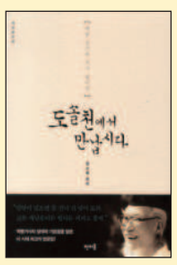
유마경 대강론
백봉 김기추 강론
불광출판사 | 18,000원



선문염송 요론
백봉 김기추 지음
비움과소통 | 12,000원



벽오동
백봉 선시집
백봉 김기추 지음
운주사 | 10,000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백봉 김기추 거사 법문집
장순용 편저
판미동 | 15,000원

전화 055-756-6707, 010-7202-1035 팩스 055-762-6708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 5년 여정

조계종 제7대 포교원, 성과 자료집 발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 퇴임을 앞두고 제7대 집행부의 성과를 담은 〈신행혁신이 불교의 미래입니다〉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간의 주요 종무기록 및 성과를 담고 있는 이 자료집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 임기 중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을 펼친 결과를 담았다.

제7대 집행부는 임기 동안 종단 신도의 정체성 확립과 역량강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신행혁신운동’ 전개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 △‘우리말 의례’ 보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부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고 불자들의 일상 속에 불교 의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썼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포교 및 네트워크 구축,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등 신도교육과 전법체제 개편 등도 추진해 반향을 일으켰다.

신행혁신, 〈불교성전〉 편찬 ‘결실’

제7대 포교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신행혁신운동이다. 교리와 수행법 의례를 체계화하기 위해 2016년 ‘붓다로 살자’ 운동을 전개하고 신행일지, 리플렛, 신행안내서 등을 배포했다.

2020년에는 불자들의 계율과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5대 수행법 활성화를 위해 〈불교5대수행법길라잡이〉를 발간했고, 올해 3월에는 스님용 〈불교 5대 수행법지침서〉도 펴냈다.

또한 사찰이 신도들과 지속적인 수행과 신행을 지원하도록 〈조계종 신도신행안내서〉도 발간했다.

또 신행문화 진작을 위해 불교 4대 명절마다 수행정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코로나 기간 SNS를 활용한 수행문화 정착에도 힘썼다.

사회흐름에 맞게 온라인 콘텐츠인 계층별 마음거울108, 붓다로살자 등 신행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 등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다.

포교현황을 정리한 ‘전국포교지도’ 또한 신행혁신을 위한 밑작업이었다. 포교현실을 데이터화 한 이 자료는 차기 포교원과 교구본사가 지역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본자료가 될 것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전국교구신도회 임원들이 2017년 11월 29일 붓다로살자 수행일지를 들고 웃고 있다.

신행 문화 전환 · 정착 집중
온라인 포교전법 최초 시도
차기포교원 사업 이관 준비
신행혁신 과제, 방향도 제시
3월 11일 지홍 스님 퇴임식

온라인 포교 활성화 눈길

7대 포교원은 코로나 기간 다양한 온라인 포교전법 활성화에 힘썼다.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SNS활용 상시소통 시스템 또한 가동한 바 있다. 포교원 유튜브 공식채널을 개설해 영상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불교크리에이터 위촉을 통해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분야에서의 불자 활동을 발굴, 장려했고, 2020년에는 고사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인큐베이팅도 직접 진행했다.

또한 청년대학생 포교 또한 강화해 청년대학생 신행축제에서 UCC공모전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발굴도 나섰다.

신행혁신 정착은 과제로

포교원은 7대 집행부를 마무리하며, 〈불교성전〉의 e북 개발, 사찰에서 우리말 법회의식 진행이 가능한 〈불교의례집〉 편찬 등의 과제를 남겼다.

앞으로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탈종교화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가운데 7대 포교원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들은 불교에서 근원적인 방향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종단 포교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으며, 이러한 포교원의 고민과 노력이 향후 포교의 미래를 여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3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 퇴임식을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성전’ 출판 봉정식 봉행

3월 4일 정각원 법당서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불교성전〉 재개정판 출판 봉정식을 봉행했다.

3월 4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에서 열린 봉정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상임이사 성월 스님, 역경원장 혜거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판된 〈불교성전〉은 지난 1972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출간한 한글본을 새롭게 펴낸 것이다. 윤성이 총장은 “〈불교성전〉은 팔만대장경의 축약본으로, 한 권으로 읽는 최초의 한글 팔만대장경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한문 번역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러운 국어로 새롭게 정비하고자 초판 발간 후 50여 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정판에는 부처님의 생애, 초기경전, 대승경전, 교단의 규범, 조사 어록 등 불교의 핵심 내용과 생활 속에서 지혜와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동국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들에게 불교정신의 핵심을 쉽게 전달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불교성전〉과 〈불교입문〉을 배부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이 〈불교성전〉 재개정판을 봉정하고 있다.

“인재양성 · 인격완성에 기여”

김중철 21대 광동중 교장 취임
광동학원 2월 25일에 취임식
일면 스님 “명품학교 만들라”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2월 25일, 광동중학교 강당에서 제20대 양승순 교장 이임식과 제21대 김중철 교장〈사진 왼쪽 두번째〉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 정은희 학부모회장, 교직원,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박종우 회장, 설재근 대외협력실장 등 참석했다. 이임한 양승순 교장은 1989년 광동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으로 깊은 불심과 건학이념 구현에 매진하였고, 교장 · 교감의 자리에 오르면서 교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광동학원은 전했다.

이날 취임한 김중철 교장은 “앞으로 학교장으로서 역대 교장선생님들과 선배교사, 학생들이 이룩해 놓은 학교 발전의 토대 위에서 명실상부한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학원의 건학이념이자 운허 스님의 크나큰 원력이신, 인재 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고 교직원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교장은 이어 “불교종립학교 교장은 교육 주체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학 이념 구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아발견’ 이라는 건학이념에 충실하고 학생들이 종교수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법회 · 수련회 · 수계식 ·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접하게 하여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 문화재 답사를 통한 전통문화 지킴이 활동, 음식의 소중함과 자연 사랑을 실천하는 발우공양 체험과 빈그릇 운동 실천, 다도 예절을 통한 전통 차문화 체험, 불교 예술 작품 제작 활동 등도 다양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교장은 “광동학원은 매년 자비의 쌀 나눔 캠페인과 자비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증하고 있다. 보시정신을 실천하는 청년불자의 인격완성에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학생과 교사 간의 참여와 소통의 여건 조성으로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보람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신뢰받는 공교육 성공 모델의 명품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분당 대광사 주지 월장 스님 취임

2월 28일 경내 지관전서 진산법회 봉행

천태종 분당 대광사 제11대 주지에 현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이 취임했다.

대광사는 2월 28일 오전 11시 경내 지관전에서 ‘제11대 주지 월장 스님 진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임 주지 월장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사찰 주지를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 대광사를 지역민들과 신도들이 마음 편히 찾아와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도량 정비와 각종 문화행사 기획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모범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축하 법문을 통해 “총무원 총무부장과 금강신문사 사장 등 종단의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월장 스님이 주지로 취임해 앞으로 대광사를 청정도량으로 꾸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겨낸다면 정토의 밝은 햇빛이 대광사에 비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제11대 주지에 취임한 분당 대광사 주지 월장 스님이 축하 꽃다발을 받는 모습.

승가원 덕양행신복지관 마을주민 팟캐스트 시작

참여자 10명 모집… 주1회 활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수탁운영하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팟캐스트, 유튜브 등의 플랫폼으로 마을이야기를 전하는 ‘단.팟.빵’ 참여주민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활동기간은 3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주 1회 진행된다. 참여자는 팟캐스트 교육, 영상크리에이터 교육, 콘텐츠 제작활동, 미디어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참여비용은 무료로 참여희망 지역주민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031)839-6033 노덕현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소통·종무 일원화 절실…해외교구 역할 주목

[진단]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

1. 해외사찰 감소현황과 원인
2. 대안과 과제
3. 모범 해외사찰 사례
4. 법제정 과정 및 경과
5.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6. 해외특별교구장 인터뷰


前 해외특별교구장 **휘광 스님**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은 문제
현지·종무행정 괴리감 좁혀야
인력 활용·양성시스템도 절실


총무원 사회부장 **성공 스님**
올해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설치 및 정상 가동 추진중
해외사찰 소통 확대 '노력'


前 조계종 국제특보 **정범 스님**
해외교구 사무국 역할 기대
해외 관련 업무 일원화해야
종단 적극적인 협조 필요해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
현지 정서·문화와 동떨어진
종무 행정 반드시 개선 돼야
외국인 포교 위한 지원 필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해외사찰수 급감 추이와 요인, 대안을 짚어낸 본지 보도 이후 조계종 해외포교의 나아갈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올해 신년사업계획에서 해외사찰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데 이어, 해외특별교구의 국내 사무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많다. 이에 오랜 기간 해외포교 일선에서 활동해 온 초대 해외특별교구장이자 뉴욕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 그리고 前 국제특보로 해외포교 종책을 이끌었던 정범 스님에게 해외 현지의 현실과 종단 및 해외특별교구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이와 함께 총무원 사회부장 성공 스님도 해외특별교구와의 협의를 통해 종단 차원에서 해외포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 좌담회는 애초 언택트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차 등 불가피한 여건으로, 서면 및 전화를 통한 답변 취합으로 구성됐다. 〈편집자주〉

스님들은 해외포교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종단 차원의 시스템 마련 등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현지와 종단 종무행정 간 괴리감을 좁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욕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은 "현지사찰 입장에서는 종무행정을 따르고자 해도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무엇보다 종단에서 해외사찰을 담당하는 종무원이 너무 자주 변경돼 해외불교의 정책적 수행과정에서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도 "프랑스의 경우 정치와 종교를 철저히 구분하는 '라이씨테' 원칙에 입각해 종교단체 설립이 지극히 까다롭다. 결국 해외포교는 그 방식 자체가 국내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종단이 해외사찰 관련한 종무를 다룰 때 현지의 정서 및 문화와 다소 동떨어진 형태를 보이는데, 해외사찰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종무행정에서도 현지법과 정책 등 해외사찰의 불가피한 사정들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현지와 종무행정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한, 해외 사찰들과 종단과의 연계고리가 더욱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로 조계종 종단 차원의 관심은 물론, 해외특별교구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인 소통 및 종무 일원화를 통한 피드백 등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해외에 계시는 스님들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원력으로 포교하시는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지난해 해외사찰편람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던 경험을 계기로 그간 해외사찰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노력을 통한 소통창구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 스님은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의 원력으로 사무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종단이 해외사찰의 목소리에 보다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활발한 상호 소통창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前 국제특보 정범 스님은 "해외 현지 스님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이미 수년째 반복돼 왔지만 개선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들"이라며 "이번에 종단이 해외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특별교구가 재가동·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지와 종무행정간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범 스님은 특히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 설치 소식과 관련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스님은 "해외특별교구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되살리고 현지에서 제기되는 아쉬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인력과 업무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사무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해외특별교구 사무처는 종무행정의 일환으로 해외사찰과 해외 거주승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를 지속하면서 상시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생겼을 시 각 부서별 업무 협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 일원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쉽지 않은 만큼, 향후 3년 가량은 종단과의 긴밀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분산된 관련 종무들을 취합하는 등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성공 스님도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며 "해외특별교구 사무국을 중심으로 소통창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부 차원에서 사무국 운영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공 스님은 "해외교구가 사무공간과 사무체계를 운영하는 등 물리적으로 교구의 틀을 갖추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리더의 경험과 추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행히도 군종교구장 경험 총무부장 경험, 그리고 여러 곳의 해외사찰 지원활동을 해오신 정우 스님께서 해외특별교구장 소임을 맡으셨기에, 노하우와 동력을 갖추고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기대를 전했다.

해외포교의 주축이 될 인재불사, 특히 인재 활용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그동안 뉴욕에서 유학하는 스님들에게 장학금 및 주석처를 지원하고 불광선원에서 소임을 맡도록 해 현지 적응을 도와 온 휘광 스님은 그간의 경험에 비춰 종단 해외포교 인재시스템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휘광 스님은 "뉴욕 불광선원에 머물며 해외포교 역량을 갖춘 스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 노하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포교 역량과 원력을 갖춘 스님들을 별도의 인재인프라 형태로 구축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소임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종단과 스님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포교를 위해서는 언어능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종단 차원에서 장학금을 투자해 전략적으로 각 나라 언어능력을 갖춘 스님들을 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범 스님도 "과거 해외포교가 소수의 슈퍼스타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각기 역할을 통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 한명 한명이 소중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종단이 국가별 해외유학승과 거주승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해외포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해외포교는 원력이 있어도 쉽지 않은 분야인 만큼 종단이 제도적으로라도 뒷받침해 스님들의 원력을 지켜주고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양측에서 국제포교사 등 역량을 갖춘 신도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 스님도 이에 공감하며 "해외사찰에서의 포교는 현지의 상황에 맞게, 현지 스님들과 재가 인력들이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단에서는 해외사찰이 안정적 운영과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부는 올해 해외특별교구 사무국이 원활하게 구성되고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로 해외에 거주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온라인 소통자리를 만들어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종교환경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스님은 "이런 첫 단추가 향후 교구 사무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된 소통의 장으로써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외교구 및 해외사찰의 활동내용이 소개되고 교류하는 공식적인 온라인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혜원 스님은 한발 더 나아가 소통을 토대로 해외포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스님은 "해외포교는 일방적인 한국불교문화 소개가 아니라 현지의 사정과 필요를 잘 파악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며 "한국에서 제작해 보내오는 문화행사 리플렛이나 번역서를 보면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스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토대로 한 협업 시스템이 이러한 재원의 낭비를 막고 효과적으로 문화를 알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포교의 핵심적인 기반인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해외사찰 상당수의 열악한 여건상 재정지원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휘광 스님은 "사실 해외교구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제법 이곳 실정에 맞는 지원금이 보장됐지만 갈수록 해외교구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한국불교포교는 한국현지보다는 훨씬 어렵다. 적은 신도와 조금의 자금으로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원력과 구호만으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범 스님은 "포교 활성화를 제대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사실상 해외포교를 위한 종단의 재정적인 기반이 그리 탄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후원을 통해 관심과 원력을 모으는 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해외특별교구의 활동이 확대되고 해외사찰과 국내 신도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진다면 해외사찰에 대한 관심도 회복되고 자연스레 원력이 모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해외포교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더해졌다. 상당수 해외사찰의 포교대상이 한국교민 위주인데 따른 것이다.

혜원 스님은 "해외사찰이 좀더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지 한국 교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현지인들을 위한 포교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프랑스와 같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인구가 모여 사는 국가에서 포교를 한다는 것은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포교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세계 각지에 유행하고 있는 한류의 열풍은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고 현지인들을 포교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해외의 열기가 식기 전에 때를 놓치지 말고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외사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단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정범 스님도 "종단의 관심과 해외특별교구의 본격 가동이 침체된 해외포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코로나 속 불교대학 결실 눈길

부산 · 경남 사찰 불교대학 졸업식 봉행

동림선원 불교 대학 1기 졸업
창녕 관룡사, 지역 한계 극복
졸업생들 십시일반 나눔앞서

하성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코로나 19로 인한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전 공부를 위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부산 및 경남에서는 봄을 맞아 각 사찰의 불교대학 졸업식이 봉행됐다.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던 불교대학의 전법활동이 꺾이지 않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동림선원 불교대학(학장 신공)은 2월 27일 경내 3층 대법당에서 동림불교대학 전문1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불교대학전문교육과정 20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부동품계증도 아울러 수여했다. 졸업식에는 동림선원 불교대학 학장 신공 스님, 명상지도법사 천조 스님,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동림선원은 현재 김해지역 유일의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기관이며 불교대학 외 기본교리과정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 경남 소재 불교대학들이 일제히 졸업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이번 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김해 동림선원 불교대학 졸업식 모습.

졸업식에서 포교원장상은 정인옥 불자가 수상했으며 통도사 주지표창은 백지원 불자, 동림불교대학 학장 우수상은 배윤주 불자가 받았다. 아울러 동림불교대학 1기 졸업생들은 졸업을 기념 동림불교대학에 졸업복 20벌을 기증했다. 학장 신공 스님은 "오늘 졸업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정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동림선원은 전법도량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조계종 창녕 관룡산 관룡사(주지 정안)는 2월 27일 경내 대웅전에서 불교대학 제3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졸업식에는 관룡사 주지 정안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통도사 호법국장 천주 스님, 밀양불교대학학장 용궁사 정무 스님, 삼성암 선원 스님, 안국사 법본 스님, 손태환 신도회장, 윤영해 동국대 교수, 이철헌 동국대 교수,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불교대학 졸업생이 참석했다.

졸업식은 △개회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내빈소개 △학사보고(영상시청) △졸업장 품계증 및 상장시상 △학장 회고사 △격려사 △축사 △축가 △발원문낭독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윤재순 회장이 수상했으며 창녕불교사암연합회장상은 김천수 불자, 표창장은 김미숙 불자, 개근상은 정영해 외 9명이 수상했다.

또, 제3기 졸업생들은 졸업식을 맞아 발전기금을 관룡사에 전달했으며, 관룡사는 발전기금을 소외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회향해 훈훈함을 남겼다.

정안 스님은 "지난 일 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공부한 시간들이 감사하고 졸업생들에게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 청량사(주지 운암)는 2월 26일 경내 극락보전에서는 마에뜨리아불교대학 포교사반 4기와 입문자반 31기 수료식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수료식에는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학장 운암 스님과 불교대학 교수인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정한 스님, 학감 능서 스님, 강사 법열 스님, 여래선원 선원장 효산 스님이 참석했다.

학장 운암 스님은 "코로나가 있는 시기에도 정진해 좋은 결실을 맺은 수료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불제자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수료생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자비의 쌀 300kg을 마련하고 나눔 전달식도 진행했다. 쌀은 범어사 산하 금정노인요양원에 전달했다.

불모산 창원 성주사가 코로나19에도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정법도량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성주사는 졸업식을 봉행하며 앞으로도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성주사 불교대학(학장 법안)은 2월 27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교대학 제5기 수계식 및 졸업식'을 봉행했다. 코로나 19에도 성주사 불교대학 졸업생은 58명(주간30명/야간24명)이었으며 졸업생들은 계를 받고 포교원 부동품계증을 받았다. 포교원장상은 정소열, 이태암 불자가 받았다.

학장 법안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해였지만 멈추지 않고 정진해 졸업식까지 여여하게 할 수 있었다"며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배운 바를 잘 익혀 실천하고 성장하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호국도량 범어사 3·1 만세운동 재현

3월1일 제102회 기념식
"독립운동가 배출 산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3월 1일 국가보훈처 지정시설 3·1 운동 유공비 앞에서 '제 102회 3·1독립만세 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범어사는 매년 3월 1일 범어사 3·1독립운동유공비 앞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기미년 3·1운동 당시 부산 만세운동을 주도한 범어사 스님들과 범어사 내 명정학교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재조명하고 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3월 1일 국가보훈처 지정시설 3·1 운동 유공비 앞에서 '제 102회 3·1독립만세 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범어사 마하다회 회원들이 헌다하는 모습.

범어사 주최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먼저 순국선열을 위한 헌다와 삼귀의 및 반야심경, 헌향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경선 스님의 추도사 및 신기열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경조부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아울러 내빈들의 헌화와 만세삼창으로 당시 치열했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특히 범어사는 부산의 3·1 운동을 주도한 범어사 지방학림과 명정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불교개혁과 민족운동을 전개하며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산실이다"고 강조했다.

유공비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1995년 3월 1일 건립됐다. 유공비 옆면에는 만세 운동을 주동한 학생 41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진으로 만나보는 옥천사 근현대사

옥천사성보박물관, 3월 3일 온라인 개막

옥천사가 걸어온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를 사진으로 만나보는 '옥천사 근현대 역사사진전' 이 개최됐다.

옥천사(주지 종성)가 주최하고 옥천사 성보박물관(관장 원명)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경남 고성 옥천사성보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전시 기간은 3월 3일~6월 30일 이다.

사진전은 옥천사 근현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80여 점과 근현대 관련 기록자료 15점이 공개된다. 아울러 전시실 입구에서는 옥천사 근현대 사진을 엮어 제작한 영상도 함께 소개 할 예정이다.



사진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옥천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서응 스님, 옥천사에서 출가하고 한국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선 청담 스님, 불교정화 후 옥천사 초대 주지를 맡고 친일불교척결운동에 앞장선 문성 스님, 20세기 중후반에 옥천사의 불사를 주도한 상오 스님 등 총 네 명의 근현대기 대표 스님의 사진이 전시된다. 아울러 옥천사 출신의 독립운동가 신화수 스님의 사진도 전시해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선 애국 활동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다.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옥천사의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사진, 고성군민과 관내 유관기관에서 소장한 다양한 사진도 함께 공개된다. (055)673-4951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불정사, 부산 금정구 성금 백미 전달

인재불사 도량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가정에 성금 및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천불정사는 2월 26일 금정구청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천불정사는 이날 성금 300만원과 백미1000kg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길 기원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천불정사의 꾸준한 자비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금정구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안전한 지역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불정사는 2월 26일 금정구청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통영 대성암, 군부대 장병 위문품 전달

통영 대성암이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대성암(주지 승원)은 2월 23일~24일 육군39사단 통영대대 용남면 부대와 산양면 군부대 앞 위병소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달품은 359여 명의 햄버거와 음료수이다.

주지 승원 스님은 "매년 군부대를 방문하고 격려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군장병들의 사기를 위해 부대 앞에서라도 전달하자는 의견을 모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성암은 2월 23일~24일 육군39사단 통영대대 용남면 부대와 산양면 군부대 앞 위병소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어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안심승신불학원 사찰운영지도자과정 모집

본 불학원은 안심정사 회주 법안스님의 교화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법사 및 스님들에게 대승불교의 정통교리와 실용불공의식 및 상담방법 등 사찰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1. 모집대상 : 본종소속 스님 및 전법사, 타 종단 스님

2. 안심승신불학원 교과목

1) 정규교과목 편성표

교과목	담당교수	경력
1.법안스님의 사찰운영 및 상담비법	법안스님	안심정사 회주, 철학박사
2.실용불공 의식	능화스님	범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 동국대 철학박사
3.행복불교학	청운스님	인도델리대학 철학박사
4.대승불교 교학체계 연구	범천법사님	인도 다람살라 티벳불교IBD과정 졸업
공통 : 신행실수 (월 1회) 실습교육 장소 : 안심정사도량		

2) 특강교과목 편성표

교과목	담당교수	경력
1.대승교학, 경전강독	법담스님	태고종중앙종회의장 안심승신불학원장
2.불교상담학(역학)	송월스님	군산대평생교육원 역학전담교수
3.불교스피치, 설법방법	이현정 박사	전 BBS 아나운서, 정치학 박사
4.불교문화와 명리학의 이해	도원스님	서울대미대 학사, 석사 교육철학 박사과정
5.비교종교학과 기도스피치	도명스님	전직 목사, 성결신학대 졸업, 사회복지사

3. 교육기간 : 2년 4학기

4. 강의시간 및 방법 : 매주 화요일, 목요일 / 비대면 강의

5. 교수진

법담 스님 승신불학원 원장 (대승경전특강)
법안 스님 (불교상담심리학, 사찰운영학)
능화 스님 (실용 불공의식 특강)
송월 스님 (사주 추명학 특강)
양청운 박사 (기초불교. 반야공관)
범천 법사 (대승교리 중급, 고급강좌)
도원 스님 (불교와 명리의 복합적 이해)
도명 스님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기도스피치)
이현정 박사 (불교스피치, 설법 특강)

6. 학사일정

입학식 3월 9일 화요일
1학기개강 : 3월 16일 / 1학기종강 : 7월 6일
2학기개강 : 9월 7일 / 2학기종강 : 12월 9일

7. 등록금 수강료 : 1학기 50만원

8. 장학제도 : 성적우수자

9. 접수 및 문의

교학처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길 18
한국불교태고종 서울 안심정사 안심승신불학원
전화번호 : **010-2142-4557**
이메일 : ansimbbuddha@naver.com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5년 만의 은해사 조실…법타 스님 추대

은해사 2월 26일
조실추대 · 주지취임식 봉행

2016년 혜인 스님 입적 후
4년 8개월간의 공석 마감
법타 스님 "화합 위해 노력"
덕관 스님 "전법도행" 다짐


혜인 스님 입적 후 법타 스님 조실 추대로 승풍진작을 서원하는 은해사 대중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조실에 법타 스님이 추대됐다. 법타 스님의 조실 추대로 공석이 된 회주에는 돈명 스님이 추대됐다.

영천 은해사는 2월 26일 경내 템플스테이관 육화원에서 신임 주지 덕관 스님의 고불식과 함께 법타 스님의 조실 추대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최소규모로 봉행됐으며 회주 돈명 스님과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최기문 영천시장, 이연화 은해사 신도회장, 선화여고 교직원 등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신임 주지 덕관 스님의 고불문 낭독, 장학금전달식, 법타 스님의 법문, 최기문 영천시장의 축사 및 자비의 쌀 전달식 그리고 은해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은해사 조실은 지난 2016년 혜인 스님의 입적 후 4년 8개월간 공석이었다. 이날 새롭게 은해사 조실에 추대된 법타 스님은 법문에서 "중생은 미혹한 마음에서 번뇌를 일으키고, 한마음을 깨달아 한없는 묘용을 일으키는 이는 모두가 부처님"이라며 "동곡당 일타 스님의 덕화와 가풍으로 더욱 수행 정진해 은해사본 말사 대중 스님의 신심 증장과 화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덕관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오늘 자비하신 불보살님께 산내 사부대중들로부터 도량장엄과 대중외호의 엄중한 소임을 위임받아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교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사뢴다"며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신심견고하고 전법 도행하는 하루를 열며 언제나 간경 구법하고 참회발원하며 하루를 닫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덕관 스님은 전임 주지 돈관 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돈관 스님은 성보박물관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은해사는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하고,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자비의 나눔, 쌀 10kg 500포를 전달했다. 자비의 쌀은 지역사회 내 소외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타 스님은 충북 청주 생으로 1965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추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제전에 참가하는 등 남북불교교류와 통일운동가로서 활동해 왔다. 현재 은해사 조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사)겨레살림공동체 공동대표, (사)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사)동행연우회 이사장, 동국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장 등을 맡고 있다.

돈관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해인사와 송광사, 금산사, 백양사, 공림사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감사국장,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미륵세계사 주지, 묘광사와 불굴사, 보문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대강백 금명보정 선사를 기리며…

송광사 3월 2일 부도탑 제막식


송광사 대중들이 금명보정 선사 부도탑 제막을 진행하고 있다.

구한말 어려운 시절 수행자이자 시인, 대강백이었던 다송자 금명 보정(錦溟 寶鼎, 1861~1930) 선사의 부도탑 제막식이 열렸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자공)는 3월 2일 경내 부도전에서 금명 보정 선사의 열반 90주기를 맞아 부도탑 제막식을 갖고, 스님의 목우가풍 수행정신과 구한말 지식으로 살아온 삶을 조명했다.

행사에는 방장 현봉 스님, 자공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여연 스님(해인사 다주), 허석 순천시장 등 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 역대조사 부도탑전 헌다에 이어 내빈소개, 경과보고, 제막식, 육법공양, 헌정식, 만인헌다, 방장스님 법문, 축시 및 축사 등이 이어졌다. 또 수좌 범종 스님(부휴문도) 인사에 이어 만인헌다례가 진행됐다. 〈솔바람 차향기〉 저자 현봉 스님은 책 헌정을 통해 "이번에 부도탑을 조성하고 스님의 업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스님의 후손된 도리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늘은 제과기능사! 내일은 바리스타!'

사)착한벗들,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 지원



착한벗들의 바리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꿈을 키우고 있다.

건강가정 다문화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모악로타리클럽(회장 이일수)은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제과기능사,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교육' 을 2월 22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 취득과 취업 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는 결혼이주여성 50명(바리스타 2급 30명, 제과기능사 20명)이 참가해 4월 말까지 바리스타과정, 6월 말까지 제과기능사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프로그램에는 관련 전문기관인 궁전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효자점(원장 김성신)과 아트갤러리 제과제빵학원(원장 김종현)이 참여해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이해 수준을 감안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 기관들은 자격증 취득 이후 인턴쉽 과정, 취업과 창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사)착한벗들 회일 스님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전문기술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 제32기 졸업식 봉행

코로나 사태 속에도 졸업생 16명 배출



코로나 사태속에서도 배출된 16명의 졸업생들은 불법홍포를 서원했다.

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가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설립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일원, 금산사 주지)이 32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1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2월 27일 전북불교회관 4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불교회관 총무 우림 스님, 정수사 주지 효진 스님, 김제 흥복사 주지 공해스님, 이근재 금산사 신도회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 김용주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과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졸업식은 개식선언,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학사보고, 졸업증서 수여, 시상, 염송문, 청법가, 졸업식사, 졸업사, 축사, 발원문, 지도교수 선물증정, 사홍서원, 산회가, 폐회,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1년간 학생회장으로 학인들을 이끌어온 윤현원 학인이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김해수, 김종대 학인이 이사장상을, 김경숙, 오정순 학인이 학장상을 수상했다. 일원 스님은 "화엄불교대학이 한국제일 불교대학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덕문 스님, 대통령 표창장 수상

3월 3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아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화엄사(주지 덕문 · 사진)는 지난 3월 3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 본사 대강당에서 덕문 스님이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공로' 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덕문 스님은 수상소감을 통해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을 축하한다. 국립공원과 조계종간의 많은 협의할 내용이 있다"고 말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종단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노력과 협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2대 이사장 진성 스님

3월 2일 취임…"자원봉사로 군민 행복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사진〉이 (사)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제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3월 2일 진안군전통문화전수관에서 이사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진성 스님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와 어려운 이웃들의 집수리 봉사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 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 더욱 정진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印, 고대 불교 사원 유적 발굴

부다가야로 가는 길목서…밀교사원 추정

김민재 객원기자

인도 자르칸드주 하사리바그 지구의 구릉에서 10세기 이전의 고대 불교 사원 유적이 발굴되어 화제다. 지난 2월 25일 인도 언론지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유적 발굴과 발굴된 유물들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인도 고고학 조사 연구팀(ASI)은 자르칸드주 하사리바그 지구의 구릉에서 10세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 불교사원 유적을 발견했다. 이번 발견은 불과 100m 떨어져 있는 고대 불교 법당이 발견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발견 된 것이다.

ASI는 유적지에서 석불 11구를 발굴했다. 이중 6구는 석가모니이며 나머지 5구는 관세음보살의 여성화신인 타라보살로 밝혀졌다. 석불들의 크기는 60~90cm로 팔라왕조의 작풍을 충실하게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ASI 고고학자 니라즈 쿠마르 미쉬라는 "이 유적은 팔라왕조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곳은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자, 부처님의 성도지인 부다가야로 가는 옛 경로에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은 발견이다"고 전했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 힌두교의 최고신중 하나인 쉬바신의 화신 '마헤쉬와리'로 추정되는 신상도 발굴됐다. 발굴팀은 이를 두고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던 당시의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다.

사원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라왕조는 8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벵골과 비하르 지역을 통치한 왕조다. 이 왕조는 대규모 승원을 포함한 불교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이 지역의 다수 종교인 힌두교 역시 보호했다. 팔라시기의 불상들은 인간의 육체를 섬세한 곡선으로 묘사하고 특히 보관과 목걸이와 같은 장식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ASI측은 "작년 12월에 세 개의 방을 갖춘 법당을 발굴했다. 당시 중앙 법당에는 타라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었고, 부속 감실에는 두 개의 여래상이 있었다. 당시 발굴에선 법당과 승원이 합쳐진 정도로 추정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종잡을 수 없었으나, 이번 유적 발견으로 이곳이 후기 대승불교의 분파인 밀교의 중요한 중심지였음이 밝혀졌다"며 이번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적지에서 발굴된 11구의 석불. 6구는 석가모니이며 나머지 5구는 관세음보살의 여성화신인 타라보살이다. 사진출처=인디아 익스프레스

발굴에 참여한 란치대학의 역사학자 D.N.오즈하 박사는 "이번 발견이 이 지역에 불교와 스님들이 도래한 역사와 북인도의 불교 확산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타라보살상이 다수 발견된 것은 이 사원이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인도에서 번성했던 밀교의 중요한 중심지였음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유적에서 발견된 타라보살상에는 고대 비문이 새겨져 있어 해당 유적에 대한 정보가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SI의 연구원들은 벽돌 벽에 부착된 불상을 떼어내 비하르주 파트나에 있는 ASI의 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발견 소식을 접한 현지인들은 열광했다. ASI는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물관 건립을 요청했으며 이번 발굴에서 발견된 석불 중 일부를 대중에 공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泰, 온라인 만불절 축제 개최

20만 명 이상 온라인으로 참여해

태국을 비롯한 남방불교의 명절 '만불절'을 기념하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불자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모여 화제다. 지난 2월 27일 로이터통신은 태국 불교 신흥 종단인 담마까야의 불교 명절 중 하나인 '만불절'을 기념하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불자가 온라인 화상회를 통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만불절은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기 3개월 전 왕사성 죽림정사에서 계율을 설법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알리지 않았음에도 1250인의 아라한이 자발적으로 부처님께 찾아와 법문을 들은 기적을 기념하는 날이다. 만불절은 태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불교 축제로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기념한다.

태국에서는 이날 사람들이 절에 모여 스님을 청해 설법을 듣고, 이후 손에 촛불을 들고서 법당이나 탑을 3번 돌고서 초 공양 올리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직접 참여가 어려워진 불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만불절을 기념하게 됐다.

담마까야 종단의 본산인 왓 쁘라 담마까야 사원에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위한 280m 길이의 LED 스크린이 사원의 탑 주변에 설치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만불절 행사에 참여한 불자와 왓 쁘라 담마까야 사원 전경. 사진출처=로이터통신

됐다. 탑 안에서 스님들이 빨리어 경전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된 만불절 예불은 스님들이 등불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절정을 맞이했다. 담마까야 홍보실은 "평소에는 사원에 참석해 등불을 밝히는 불자가 수십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불절 행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불자과 함께 만불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만불절 행사에는 전세계의 담마까야 신도 약 2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참석자들은 대부분 태국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불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1천 명의 불자들이 흰 옷을 입고 온라인 참가자들을 대신해 등불을 밝히고 탑돌이를 진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도쇼다이지 100년만의 포살의식 부활

〈唐招提寺〉

비공개 진행 후 영상공개, 차후 재가자도 참가할 계획

출가자들이 보름에 한번 씩 모여 계율을 점검하고 참회하는 포살(布薩). 일본에서 100여 년간 단절되었던 포살의식이 나라(奈良)에 소재한 사찰, 도쇼다이지(唐招提寺)에서 부활했다. 2월 2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나라방송' 등의 주요 언론들은 이 기쁜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포살회를 부활시킨 도쇼다이지(唐招提寺)는 일본 율종의 총본산으로 8세기 초 중국 당나라의 율사였던 감진화상(鑑真和上)이 율장을 가르치고 비구계를 수계한 이래 계율의 상징으로 법등이 전해온 천년 고찰이다.

도쇼다이지 측은 "포살회는 개산조인 감진화상이 일본에 전한 이래로 각 사찰로 널리 퍼져 중세엔 보편적으로 진행되던 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대에 불교가 일시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기에 포살회의 맥이 단절되었고 율종의 본산인 도쇼다이지마저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100여 년 만에 부활한 도쇼다이지의 포살회.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도쇼다이지의 장로 니사야마 묘곤 스님은 "맥이 끊긴 옛 전통 중 중요한 것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사찰에서 보관중인 중세 포살회의 의궤와 주석서 등을 발굴, 정리했다. 또 교토의 류코쿠 대학과 협업하여 이들 문서들을 현대어로 풀이하고, 의식의 절차를 정립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포살회는 지난 2월 15일 도쇼다이지의 예당(禮堂)에서 봉행됐다. 예당은 감진화상이 전계를 위해 당에서 모셔온 불사리를 모신 전각으로 포살을 부활하는 데 또 의미가 깊다고 사찰측은 전했다. 포살회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재진과 신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대중 스님들만으로 1시간 가량 비공개 진행됐다. 그러나 100년만의 부활을 기념하고, 포살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 과정을 특별히 촬영, 20분 가량의 영상으로 편집해 지난 21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쇼다이지 측은 "짧은 영상이지만 감진화상이 전한 마음을 이어가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상을 공개한 의의를 밝혔다.

포살회는 먼저 대중들이 모두 모였는지를 확인하고, 도량을 정화하고 참석한 이들이 손을 씻은 후 상좌(上座)소임을 맡은 스님이 큰 소리로 계목을 읽으며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묘곤 스님은 "100여년 만에 개산조 감진화상이 전한 의식이 다시금 부활되었다는 점에서 대중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같은 불교도인 재가신자 분들도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끊겼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 후대에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 나름이다. 이번에야 말로 끊김없이 이어나가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도쇼다이지 측은 앞으로 년 2회 공식적으로 포살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쇼토쿠 태자 서거 1400주기 특별전

비공개 불상, 새로 발견된 복장유물 등 다채로운 전시

한일 고대불교사의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의 서거 1400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선양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나라 국립박물관과 호류지(法隆寺)가 함께 특별전을 개최해 화제다. 2월 26일, 일본의 'NHK 방송', '산케이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특별전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쇼토쿠 태자는 고대 한일 불교사의 중요한 인물로, 일본에서는 불교를 공인하고 최초의 관사(官寺)를 세우고 고구려에서 스님들을 모셔오는 등 불교를 수입하는 데 열심이었다. 또한 스스로 〈법화경〉, 〈승만경〉, 〈유마경〉의 주석서를 쓰고 강의하는 등 교학에도 깊었던 것으로 전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쇼토쿠 태자의 업적에 힘입어 그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기는 태자신앙이 중세부터 발전했고 다양한 조각과 회화 등의 유물이 풍부하게 전한다. 호류지는 이러한 유물들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쇼토쿠 태자 선양사업의 일환으로서 나라박물관과 특별전 '쇼토쿠 태자와 호류지'를 개최한다.



특별전의 의의를 설명하는 호류지 주지 쇼가쿠 스님. 사진출처=NHK방송 캡쳐

이번 전시회에서는 평소 비공개인 쇼토쿠 태자 좌상이 선보인다. 이 좌상은 쇼토쿠 태자 서거 500주기를 기념해 조성된 것으로 쇼토쿠 태자가 왕에 오른 모습으로 묘사된 불상이다. 호류지 산문 밖에서 공개되는 것은 27년만이라고 나라박물관은 전했다.

또한 호류지 금당에 봉안되어 있는 국보 약사여래좌상과 수 만 마리의 비단벌레 껍질로 만든 감실인 옥충주자(玉虫厨子)등도 전시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베스트 셀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4~3/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혜조스님	운주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5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김대현	운주사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0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적명을 말하다(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9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10	티베트 사람들의 보리심 기도문	청전스님	불광출판사

책세상

처음 펼친 〈금강경〉에 감동, 밤 새 노래 짓다



금강경 강송
백봉 김기추 지음
가을여행 펴냄/1만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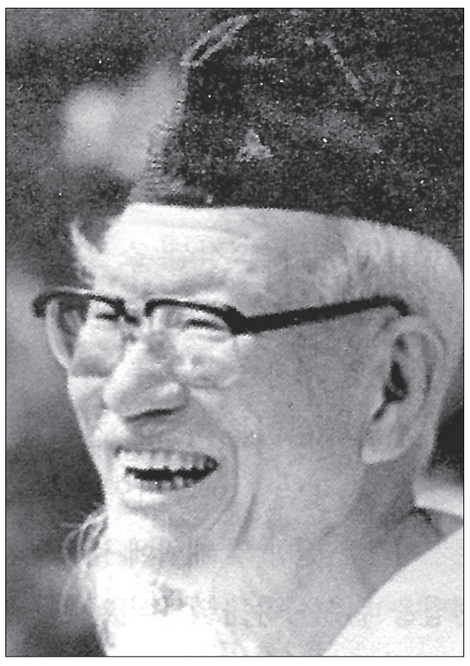
"산에서 내려와 보니 조그마한 금강경이 있어요. 번역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어려운지! 그런데 대강 보니 굉장한 책이라!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데. 반야바라밀다니 뭣이니 전혀 몰랐죠. 한데 가만 보니 '대강 이 말이다' 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게송(偈頌)을 달아봤습니다. 게송을 달기 위해서 단 것도 아닙니다, 재미로 달았습니다. 전부 달고 나니 새벽 4시 15분 전이에요. 게송을 달 때 책을 낸다느니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책이란 학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무식쟁이가 어떻게 책을 낼 겁니까?" (저자의 말, 1982.7)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1976년에 보림선원서 발행한 금강경강송(金剛經講頌) 4판을 한글세대를 위해 새로 편집한 것이다. 백봉 김기추 거사〈오른쪽 사진〉 생존시의 최종판인 1976년판은 한자를 많이 써서 한자에 익숙치 않은 한글세대가 해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곳곳에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어 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분적으로 문장이나 단어의 순서를 조정했다.

그러나 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해 한글화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하였고, 한글 세대에게 낯선 어투도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바꾸지 않았다. 1985년 저자가 입적하며 이 책이 절판된 후 헌책방에서도 구할 수 없다며 이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나 한자 혼용, 고어적 표현 등 한글 세대가 가까이하기 어려워 어느 출판사도 책을 내려는 뜻을 내지 못했다. 다행히 2004년 운주사가 뜻을 세우고 한글세대의 감각에 맞게 책을 편집해 출간했다. 그러나 운주사도 이후에 책을 절판함으로써 이 책은 다시 헌책방에서 구하기 어렵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책이 되었다.

뒤늦은 재편집한 발행에 환영하는 명사들의 추천사도 이어졌다. 석성우(시인, BTN회장) 스님은 "백봉의 금강경을 읽지 않고는 '금강경 읽었다'는 소리 하지 말라! 정말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해요, 법회 때마다. '우리나라에 현존(現存)하는 금강경 주석(註釋)이 백 권 정도 될 거다. 그 가운데 출가 쪽으로는 소천(韶天), 재가 쪽에는 백봉 선생이다. 그 두 권은 읽어봐라. 그 두 권 안 읽고는 금강경 읽었다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1976년에 출간한 4판 현대감각에 맞춰 재편집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분 문장 단어 순서 조정
50여년간 만권 넘게 보급된 불교계 스테디셀러

전준열 동국대 교수도 소감을 피력했다. "혼탁한 사회, 영혼에 병들고 지혜에 녹슨 이 땅의 생신제(生新劑). 1년전까지는 그저 촉망 받는 일개 구도자였던 이분이 그야말로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의 기연(機緣)을 가진 줄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이분이 본 강송(講頌)의 교간(校刊)을 나에게 부탁했을 때, 내심으로 '이분이 불교를 얼마 하지 않은 분이니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겠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 강송을 일단 정독해 보니 그야말로 언언(言言)이 이인당양(利刃當陽)이요, 구구(句句)가 수쇄불착(水灑不着)이요, 부처의 심간(心肝)을 궤뚫는 것이요, 중생을 해체(解體)하여 버리는 기발(奇拔) 그것임에 새삼 감탄 경복(敬服)을 불금(不禁)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백봉 김기추 선생, 이분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불법의 도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시인 홍영의도 한마디 거들었다. "미진(迷津)의 교량(橋梁)이요 암야 (暗夜)의 증명(證明)과 같은 책이다. 백봉 김기추 선생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마치 떡 주무르듯이 자유자재로 그 심오한 의취(義趣)를 갈파(喝破)하고 웅건(雄建)한 송구(頌句)로 노래하였다. 초심자를 위해서나 전문가를 위해서 이 강송서(講頌書)는 어진 사우(師友)요 선지식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백봉 김기추 거사는?

1908년에 부산 영도서 태어났다. 부산 제2상업학교를 중퇴하고 민족운동을 벌이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년간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특급 요시찰 인물'로 일제의 감시와 방해를 받으며 지내다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간사장으로 일할 때 굶주리는 시민들을 보고 양곡창고를 열어 쌀을 나누어 준 것이 군정법령 위반이 되어 5년형을 언도받았다. 재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나 이미 형무소에서 2년을 복역한 후였다. 이후 학교를 세우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다 정치에 뜻을 세우고 자유당에 입당하였으나 4 · 19혁명으로 자유당과 함께 파산하고 도피하듯 부산을 떠났다. 서울, 인천에서 하릴없이 세월을 보내다 1963년 여름에 불교를 만나 '무자(無字)'화두를 받고 참구해 이듬해 1월 크게 깨달았다. 이후 인천, 서울에서 〈금강경〉을 강의하다가 1970년 충남 유성에 보림선원을 열고 대학생 및 수좌들을 가르쳤다. 1972년 부산으로 선원을 옮긴 후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1985년에 지리산 선원에서 입적했다. 저서로는 〈금강경강송〉〈유마경 대강론〉〈선문염송요론〉(15권) 〈백봉선시집〉〈절대성과 상대성〉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나날이 뚜렷함이여! 안 꺼지는 나날의 등불이로다. 그 성체(性體)는 휘영청이 맑아서 시방(十方)에 두루하고, 그 이량(理量)은 영특스리 밝아서 일체(一切)에 잠겼으니, 이 미(迷)함이냐, 이 깨침이냐! 태산이 눈을 부릅떠서 오니 녹수(綠水)는 귀를 가리고 가는 증처(證處)인지라, 이 실로 너의 알뜰한 터전인 줄로 알라."

▲"생각 생각이 환함이여! 안 꺼지는 생각 생각의 등불이로다. 그 위덕(威德)은 외외(巍巍)하여 사해(四海)를 거느리고 그 공행(功行)은 당당(堂堂)하여 구류(九類)를 건지니, 이 참이냐, 이 거짓이냐! 옛 길에 풀은 스스로가 푸르르니 바름[正]과 삿됨[邪]을 아울러 안 쓰는 용처(用處)인지라, 이 바로 너의 살림인 줄로 알라."

▲"자국 자국이 시원함이여! 안 꺼지는 자국자국의 등불이로다. 그 수단(手段)은 호호(浩浩)하여 이변(二邊)을 거두움에 뜻하여 이루지 못함이 없고, 그 방편(方便)은 탕탕(蕩蕩)하여 삼제(三際)를 말아냄에 행하여 달(達)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실다움이냐, 이 헛됨이냐! 만약 오늘일을 논의하면 문득 옛 때의 사람을 잊어버리는 응처(應處)인지라, 이 오로지 너의 맡음[任]인 줄로 알라."

▲이렇듯이 천당을 세우고 지옥을 세움도 도무지 한생각에 달렸고, 중생을 굴려서 부처를 지음도 오로지 한 마음에 걸린 것이니, 어찌 중생이란 이름자를 걷어잡고 부처님의 제도(濟度)를 새삼 기다릴까 보냐. 비록 그러하나 부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중생성(衆生性) 중에 본래로 생멸(生滅)이 없는 줄을 깨쳐 알고서 입으로는 무상법(無相法)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무상행(無相行)을 닦지 않으면 어느 때를 기다려서 무상도(無上道)를 깨치리요. 알지어다! 법(法)을 취함도 원래가 어리석은 짓이지만, "공(空)을 깨쳤다" 함도 또한 이에 참이 아니어늘, 어디로 향하여서 천진면목(天眞面目)을 접하겠는가. 이 또한 드높은 고개로다. 모름지기 법(法)과 공(空)을 다 놓으라. 놓다가놓다가 보면 안 놓이는 것이 있으리니, 이 바로가 본래로 확연한 영지(靈知)인지라, 애오라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만고(萬古)의 풍광(風光)이요, 귀에 들리는 것마다가 겁외(劫外)의 지음(知音)인걸! 어찌 들뜬 의심을 좇아서 몸 밖을 향할까 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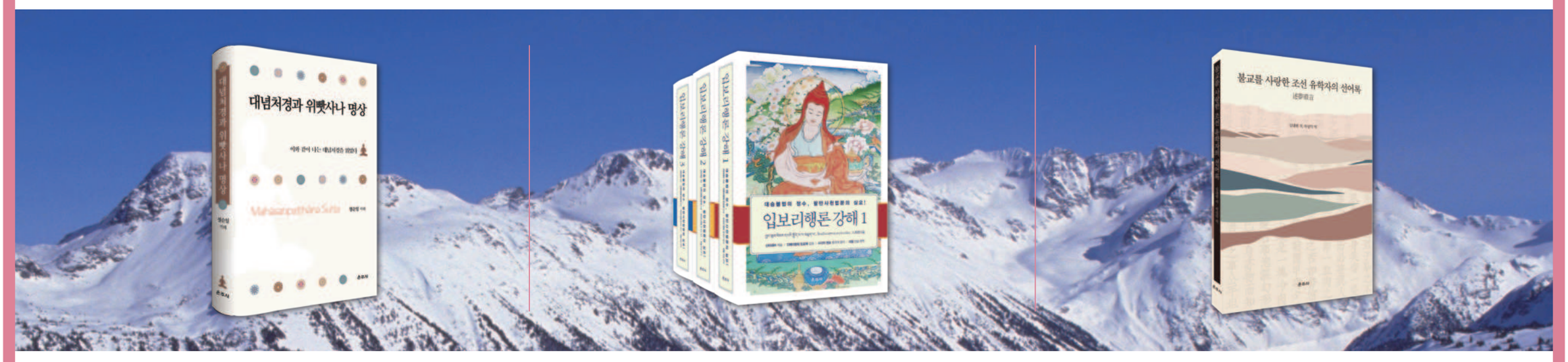
▲"애오라지 부처님이 법의(法衣)를 입으심은 참으로 입으심일까? 그러나 법의를 입으시지 않음도 아니며, 바리를 드심은 참으로 드심일까? 그러나 바리를 드시지 않음도 아니며, 사위의 큰 성안으로 들어가심은 참으로 들어가심일까? 그러나 사위의 큰 성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음도 아니며, 밥을 비심은 참으로 비심일까? 그러나 밥을 비시지 않음도 아니며, 본곳으로 돌아오심은 참으로 돌아오심일까? 그러나 본곳으로 돌아오시지 않음도 아니며, 진지를 마치심은 참으로 마치심일까? 그러나 진지를 마치시지 않음도 아니며, 의발(衣鉢)을 거두심은 참으로 거두심일까? 그러나 의발을 거두시지 않음도 아니며, 발을 씻으심은 참으로 씻으심일까? 그러나 발을 씻으시지 않음도 아니며, 자리를 베풀어 앉으심은 참으로 앉으심일까? 그러나 자리를 베풀어 앉으시지 않음도 아님이로다. 히힛! "약무공중월(若無空中月)이면 안득천강월(安得千江月)이리요." 이 무슨 소식일까?"

▲"장하도다, 장로 수보리시여 ! 세존이 한마디의 말씀도 끄집어내시기도 전에 그 뜻을 드시었으니 그 경계를 알아차리셨네. 그 경계라서 한마디의 말귀로 「드무십니다」 하시니 바로 천기를 누설함이로다. 천기를 누설함이여 ! 구름은 가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며, 달은 뜨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뜨며, 물은 흐르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흐르며, 꽃은 피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니, "여여부동이여 조이상적(照而常寂)하고, 올올회광(兀兀回光)이여 적이상조로다." 번역하되 "의젓하여 안 움직임이여, 비추어서 항상 적적하고, 오뚝하여 빛을 돌이킴이여, 적적해서 항상 비춤이로다." 허허 ! 한 개 뿔 난 토끼가 물속 달을 품음이로다."

위빳사나 수행의 소의경전!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

티베트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조선의 유학자, 깨달음을 말하다!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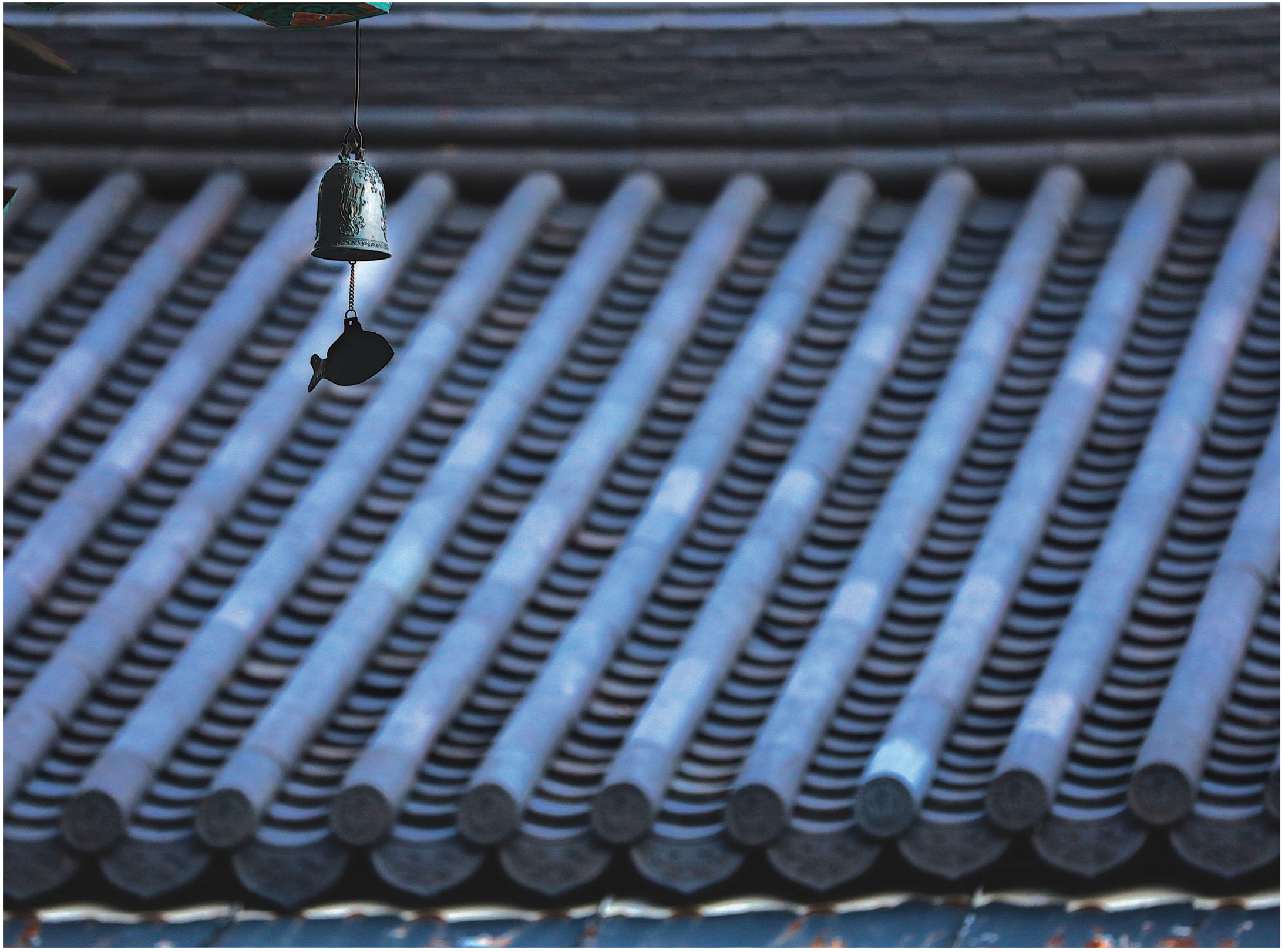


불교 명상의 핵심인 사띠(sati)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대념처경』의 빨리어 전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번역하고 해설!
정순일 역해/신국판/양장/376쪽/값 22,000원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진메이펑춰 린포체가 방대한 해설을 달았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술몽쇄언述夢瑣言>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 생사 문제를
조리정연하게 설파한 보석 같은 책!
김대현 저/박성덕 역/국판/208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잠들지 않는 소리

누구에게나 끝내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나'가 하나쯤 있다.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작은 흠집 하나는 어느 전생이 남긴 흔적일까. 공업의 지붕 위에 기와 한 장 얹고, 숙업의 머리칼을 잘라 지난날을 지워도 바람 부는 작은 종속엔 그렇게 전생들이 매달린다. 달빛뿐이던 그 새벽에 그렇게, 빗소리에 저무는 저녁 끝에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 끝에 그렇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연과 시절 끝에 그렇게…. 작은 바람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잠들지 않는 종어성(鐘魚聲)이 또 가슴 속을 지나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경남 산청 정취암

조선시대 불교는 활활발발했다

주목! 학술서 김용태 교수의 〈조선불교사상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시대를 통칭 '숭유억불의 시대'라고 말한다. 조선왕조 500년은 유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배척했다. 승려는 천민으로 지위가 낮아졌고, 도성 출입도 금지됐다. 삼국 · 고려시대에는 활발한 영향력을 가졌던 불교가 하루아침에 비주류가 돼 민간의 신앙으로만 면면히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불교'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정말 그러했을까.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최근 발간한 연구서 〈조선불교사상사〉는 우리가 아는 상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조선불교사상사〉는 유교의 시대 조선을 가로지르며 전개된 불교적 사유의 지형을 탐색하고 복구해나간다. 기실 불교는 조선시대에도 그 생명력을 연면히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선(禪)과 교(敎)의 사상을 계승하고 시대에 맞게 종교적 활로를 넓히며 나름의 사회 · 문화적 역할에 충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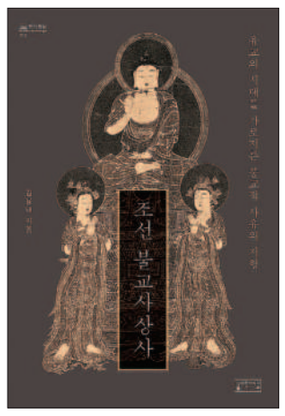
특히 조선후기에는 교육과 수행의 체계화, 법맥과 사상의 계승을 통해 선과 교, 의례와 신앙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통을 구축해왔다. 오늘날 한국불교 전통의 원형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형성되었거니와 한국인의 사유와 가치, 문화와 예술 등에 미친 불교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김용태 교수는 연구서에서 엄밀한 자료 분석과 비교지성사의 방법론으로 조선 불교사상의 전체상을 온전히 재구성해내기 위해 진력한다.

지난 100년간 축적된 조선시대 불교 연구의 성과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교사상을 선과 교의 융합과 계승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제1장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불교 연구의 기반을 닦고 이해 수준을 높인 반면, 오리엔탈리즘이 투영된 폄훼의 도식과 부정적 타자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고, 조선시대 불교에 '억압과 쇠퇴'의 굴레가 씌워졌다"고 주장한 부분은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이어 저자는 조선의 불교를 이끈 선



'조선=유교' 도식화 넘어서
조선불교 사유 지형 고찰해
'억압 굴레', 日학자 만들어
동아시아 차원서 조명돼야

지식들의 사상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한 뒤, 유교사회의 종교적 지형과 시대성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한다. 역사적 문맥 속의 시대 지향과 의례 형태 그리고 신앙의 양상들을 포괄하여 불교사상의 외연을 확장하고, 제도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불교사상이 전개되는 사회적 함의를 짚어낸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저자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도출하기 위해 전통과 근대의 가교인 조선불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시대 사상사에 대한 성찰적 계기를 함께 모색한다. 한국적 전통이 형성된 조선시대를 더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는 유교라는 잣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불교를 비롯한 여러 프리즘을 통해 그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용태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중일 삼국은 긴 시간 각자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1500년 이상 동질적인 불교문화권을 공유해왔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유교 · 도교 · 기독교 등은 상존하던 경쟁 상대였을 뿐, 불교를 매개로 한 인적 · 물적 교류와 사상과 문화의 유통 및 확산, 정체성의 향유는 동아시아 세계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조선시대 불교 연구로부터 동아시아의 근세를 다른 차원에서 독해하는 도전적 담론이 제기될 수 있는 전거로 작용한다.

익산 미륵사지 가마터 보호각 새 단장

문화재청 3일 일반 공개
주변 조화 디자인 '눈길'


새롭게 조성된 미륵사지 가마터 보호각의 내부 전경.

익산 미륵사지 내에 있는 가마터의 보호각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모했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정부혁신이자 적극행정을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 사업의 하나로, 익산 미륵사지 내 가마터 보호각을 새롭게 단장하고 3월 3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보호각은 그동안 색과 재질이 유적과 이질감이 있어왔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새로 단장한 보호각은 기존의 벽과 지붕을 없앤 후 진회색의 금속판으로 건물 전체를 감싸고 근처에 소나무를 심어 유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난간과 금속 창살은 커다란 투명 유리창으로 교체하고 전시 소개 안내판도 설치해 가마의 모습도 더 정확히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각 내 화장실도 설치해 관람객들의 편의도 증진시켰다.

익산 미륵사는 백제 무왕 대(600~641년)에 창건되어 1600년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가마터는 조선 시대 기와 가마터로, 미륵사에서 기와를 자체 공급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가설 건물이던 기존 보호각을 한층 더 세련된 건축물로 새로 단장한 만큼 유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람 편의 시설(화장실) 설치로 문화재 관람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람객들이 문화재를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 시설의 디자인과 설치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한문아카데미 연수생 추가 모집

3월 12일까지… 비대면 면접 가능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 불교한문아카데미는 2021년도 1학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연수생을 추가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3월 12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선발연수생의 면접과 필기전형은 일정 협의 후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는 지난 2012년부터 조계종 교육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불교한문 교육기관으로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번역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본과정'과 역경전문가를 배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매학기 15주 동안 강좌를 진행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과 실력이 요구되므로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정원은 각각 30명과 15명이다.

이번 학기부터 심화과정의 필기시험 과목이 〈대승기신론〉〈현정론〉〈도서〉에서 규봉 종밀의 〈원각경대소석의초〉권 제1로 바뀌었다. 출제위원들은 "응시자마다 다른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라며 "심화과정의 응시자는 사전에 심도 있는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합격자는 모두 개별 통보한다.

불교한문 전문가를 양성하는 만큼 불교한문아카데미 수강시 특전도 있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수강료가 면제되며,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성적우수자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수업 기간은 6월 14일까지,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기본과정은 〈사십이장경〉(선암 스님), 〈불교원전대독〉(최종남), 〈맹자〉(공근식), 〈구사론〉(박인성), 〈불교한문법〉(박영록)이 교과목이다. 심화과정은 〈금강경삼가해〉(이상하), 〈문집선독〉(선암 스님), 〈유불대론〉(성태용), 〈기신론필삭기〉(대진 스님), 〈고승비문〉(박해당)을 다룬다.

조기룡 불교학술원 교육홍보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부 지침 준수를 위해 실시간 비대면 강좌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태가 진정되는 추이에 따라 대면 강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02)6713-5154 신성민 기자

신문 원고로 본 법정 스님 시대정신

여태동 불교신문 편집국장
법정 스님 주제 박사 학위
〈대한불교〉 원고 분석통해
시대정신 형성 · 전개 고찰

법정 스님(1932~2010, 사진)은 한국 현대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문사(文師)이면서 수행자였다. 스님이 글을 통해 설파했던 무소유 정신은 고도성장기 한국사회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금언(金言)이었다. 스님은 많은 글을 남겼고, 이중에는 현재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와 일간 신문들에 게재한 칼럼들도 있다. 이들 칼럼들은 수필가로서의 법정이 아닌 불교와 사회를 맑히기 위함에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법정 스님의 신문 칼럼은 스님이 보여줬던 시대정신의 궤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다.

여태동 불교신문 편집국장의 박사학위 논문 〈법정의 시대정신 형성과 전개 과정 연구〉는 신문 발표 원고를 중심으로 법정 스님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제적으로 전개됐는지를 살피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54년 출가한 법정 스님은 해인사에서 고려대장경을 공부하고 번역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동국대 동국역경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경전번역에 나섰다. 〈대한불교〉에 원고를 쓴 것도 비슷한 시기이고 이후 법정 스님은 주필과 논설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실제 주목할 것은 일반이 알고 있는 에세이스트 법정이 아닌 언론인으로서 법정이다. 여 국장의 주장대로 "1960년대 불교교단의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유려한 글로 불교교단, 특히 조계종단의 발전을 위한 고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실제 법정 스님이 〈대한불교〉에 원고를 게재하며 주장했던 비판의식은 현재의 한국불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970년 2월 28일자 〈대한불교〉에는 법정 스님의 '침묵은 범죄다-봉은사가 팔린다' 칼럼이 실린다. 여기서 법정 스님은 현재 수용하는 삼보정재가 선사들의 피눈물나는 이면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렇기에 지금의 우리는 정재를 수호할 의무는 있어도 팔 권리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 국장은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봉은사 부지를 대량매각하려는 종단의 처사에 반대하는 법정 스님의 의지를 가득 담은 글은 명칼럼으로 평가된다"면서 "스님의 정론직필 주장은 삼보정재 유출을 비판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스님의 그러한 논지는 60년이 지난 현재 판단할 때 천문학적 금액에 이르는 불교재산 유출을 막는 올바른 판단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조계종 재산이 망실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법정 스님의 올바른 주장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 국장은 법정 스님에 대한 사상적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국장은 "법정 스님의 글은 철저하게 준비된 문장으로 한 문장의 글 속에는 반드시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방법이 들어 있었다"면서 "불교계가 하루 속히 '법정사상연구소'를 설립해 법정 스님의 사상을 활발하게 연구했으면 한다. 나아가 '법정학'이 정립돼 후세에 다양한 영역으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4월 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

▶ 10회 예고
탁실라에 도착한 빈두사라왕은 반란자들을 잔인한 공격으로 진압한다. 그러나 다르마는 빈두사라의 피 묻은 갑옷과 잔인함에 놀란다. 특히 자신의 뱃속에 든 왕자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꾸루국에서 환대를 받다

빈두사라왕 군사는 탁실라로 향했다. 정예군사로 구성한 선봉대가 맨 앞장을 섰고, 그 다음은 코끼리를 탄 친위대가 빈두사라왕을 앞뒤로 호위했고, 이어서 물품을 수송하는 군수대가 따랐고, 맨 마지막은 활처럼 휘어진 칼을 옆구리에 찬 보병들이 달리듯 걸었다.

빈두사라왕이 탄 코끼리가 단연 돋보였다. 머리에 오색 구슬로 장식한 코끼리는 몸에 황금색 비단을 두른 채 겅중겅중 움직였다. 코끼리등 위에는 전단향나무로 만든 의자가 놓였고, 왕을 상징하는 대형 일산은 군사 두 명이 붙들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일산 속에서 친위대장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

"행군을 멈추거라!"

"잠시 휴식을 하라!"

다르마 왕비가 탄 코끼리도 눈에 띄었다. 작은 창문이 사방으로 나 있는 가마는 코끼리 등에 얹혀 있었고, 창문에는 주렴이 주렁주렁 늘어뜨리어져 군사들은 가마 안의 왕비를 볼 수는 없었다. 다르마는 가끔 주렴을 들어 올리면서 바깥의 동정을 살피곤 했다. 락슈미띳사와 보따리를 손에 든 궁녀들은 다르마 왕비가 탄 코끼리 뒤에서 종종걸음으로 뒤따랐다.

빈두사라왕 군사는 하루에 1요자나(yojana) 거리만 이동했다. 1요자나란 왕이 하루 행군하는 40리 정도의 거리를 뜻했다. 물론 빈두사라왕 진압군은 1요자나를 더 갈 때도 있었다. 좋은 숙영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숙영지는 반드시 우물이 있고 코끼리 먹이가 풍부한 곳이어야 했다. 코끼리는 날마다 습지의 부드러운 풀이나 산자락의 딱딱한 나무껍질과 뿌리 등 어마어마한 양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웠다.

빈두사라는 소국의 왕들에게 환대를 받았다. 빠딸리뿌뜨라와 탁실라까지의 중간쯤 되는 꾸루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꾸루국 왕은 숙영지 부근으로 악사와 무희들을 데리고 달려왔다. 꾸루족 요리사들은 공작새 요리를 머리에 이고 왔다.

"대왕이시여, 저희 나라를 방문하시어 영광입니다. 편히 쉬었다가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젊은 꾸루국 왕은 빈두사라의 심기를 살피면서 말했다.

"꾸루국을 방문해 주시어 영광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다 말씀해주십시오. 이미 대왕님을 위해 꾸루국 악사는 물론 공작새 요리를 한 요리사까지 와 있습니다."

꾸루국 왕은 빈두사라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고개를 숙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마우리아국 북서쪽에 있는 꾸루국은 마우리아국의 눈엣가시인 깔링가국과 연합해왔던 것이다. 깔링가국은 비록 소국이지만 마우리아국이 함부로 다루지 못해왔던 나라였다. 깔링가국은 마우리아국에 복속하고 있는 듯 엎드려 있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반란을 일으킬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도 꾸루국은 깔링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은밀하게 협력해 왔던 것이다. 빈두사라는 꾸루국 왕의 속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환대를 잊지 않겠소. 나는 꾸루국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소. 우리 군사들이 너무 피곤하니 악사들의 연주는 사양하겠소. 그러나 왕께서 가져온 공작새 요리는 내일 행군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소."

그때 빈두사라왕을 보좌하는 브라흐민 제관 칼라따까가 귓속말로 조언했다.

"꾸루국 왕은 간사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악사나 요리사들이 품속에 칼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하옵니다."

"그 점을 미처 생각지 못했소. 우리 숙영지 안으로 불러들일 때는 몸수색을 하시오."

꾸루국 왕이 빈두사라왕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

"대왕이시여, 저희들 호의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우리 전통음악과 공작새 요리로 대왕님의 피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소. 그런데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소."

빈두사라가 경계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자, 꾸루국 왕이 더욱 고개를 주억거리며 말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깔링가국과 손을 떼시오."

"꾸루국은 깔링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바다 너머에 있는 나라에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깔링가국에 협조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꾸루국 왕의 말에 빈두사라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때 또 다시 제관 칼라따까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속지 마시옵소서. 저 간사한 왕은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할 것이옵니다. 조공을 감면해줄 테니 깔링가국과 손을 떼라고 하시옵소서."

빈두사라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꾸루국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소. 우리나라에 바치는 조공을 감해줄 테니 깔링가국과 협력을 끊으시오."

조공을 감해준다는 말에 꾸루국 왕이 땅바닥에 엎드렸다. 산악이 대부분인 꾸루국은 공작새 수십 마리와 코끼리 다섯 마리를 매년 마우리아국에 조공하는 일이 힘겨웠던 것이다.

"관대한 대왕이시여, 공작새는 키워서 바칠 수 있으나 코끼리는 다른 나라에서 구해 보내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니 코끼리 조공을 면제해주신다면 대왕의 덕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좋소. 코끼리 조공을 면제해주겠소."

"대왕이시여, 대왕이 계시는 마우리아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소국들이 대왕을 우러르며 따를 것입니다. 다만."

"더 할 말이 있소?"

"다만, 바로 깔링가국과 손을 떼면 이미 나가 있는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잡혀 죽을 것이니 일정한 기간을 유예해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칼라따까는 꾸루국 왕을 의심했다. 깔링가국과 내통하면서 장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칼라따까가 다시 빈두사라왕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꾸루국 왕과의 약속은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경각심을 주었을 것이니 그것으로 만족하겠소."

빈두사라는 열대여섯 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꾸루국 왕을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오도록 허락했다.

"이리 오시오. 친해지고 싶소."

빈두사라는 신하들의 마음을 살필 때 눈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 신하가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거나 지나치게 눈을 깜박거렸던 것이다. 그런데 꾸루국 왕의 태도는 주눅이 들어 있을 뿐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빈두사라는 꾸루국 왕을 믿어보기로 하고 조언해주었다.

"내가 깔링가국과 협력을 끊으라고 한 이유는 또 이런 것이 있소. 자, 제관께서 깔링가국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이야기해 보시오."

칼라따까가 빈두사라를 한 번 쳐다보더니 곧 꾸루국 왕을 무시하듯 곁눈질하면서 말했다.

"꾸루국 왕이시여, 깔링가국 백성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오. 옛날부터 브라흐민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최하층의 브라흐민이라오. 그들에게는 〈베다〉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하늘과 별에 대한 지식도 무지하며, 산 짐승을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도 없다오. 신들은 깔링가국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제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오. 그러니 깔링가국은 축복받을 수 없는 땅이라오."

빈두사라가 깔라따까의 말을 자르며 꾸루국 왕에게 말했다.

"이제야 알겠소? 깔링가국은 발을 들여놓지 못할 땅이라는 것을. 그러니 깔링가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발로 죄를 짓는 것이라오."

꾸루국 왕은 몹시 위축되어 바들바들 떨었다.

"아그니(火神) 제사를 지내야 벌을 면할 것 같습니다."

아그니는 바이슈바나리아의 별칭이었다. 마우리아국 브라흐민들이 깔링가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베다〉의 권위를 무시하고, 브라흐민 제사장들이 벌이는 희생제를 비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우리아국의 불교와 자이나교, 심지어 아지비까교 수행자들은 빈두사라왕의 신하들이 깔링가국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에 마음속으로는 동조하지 않았다. 깔링가국 사람들은 브라흐민보다 불교와 자이나교 수행자들을 더 존경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깔링가국에서는 브라흐민들이 마우리아국과 달리 대접받지 못했다.

"대왕이시여, 저희 악사들이 꾸루국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싶어합니다."

"좋소. 우리 군사가 몸수색을 하더라도 불편해하지 마시오."

"제가 먼저 자원해서 받으면 저의 신하들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꾸루국 왕은 흔쾌하게 몸수색을 받겠다고 나섰다. 사실 그는 코끼리 조공을 면제받은 것만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했다. 꾸루국에서 코끼리를 조공할 때는 온 나라가 한 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만큼 꾸루국에서는 코끼리가 귀했다. 코끼리는 금이나 청동 같은 귀한 광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구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었다. 코끼리를 바치곤 했던 이유는 마우리아 군사가 언제 보복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빈두사라왕과 군사는 꾸루국에서 바친 공작새 요리를 먹으며 악사들이 연주하는 노래와 무희들의 춤을 감상했다. 악사들은 꾸루국 현악기인 사랑기(Sarangi), 입에 대고 부는 마충가(Machunga), 작고 길쭉한 북인 마덜(Madal), 소라고둥으로 만든 샹카(Shankha)를 들고 흥겹게 연주했고 무희들은 빙빙 돌면서 옷자락을 휘날렸다.

악기들은 낯익었지만 음악은 마우리아국과 달랐다. 꾸루국 전통음악은 폭포수 떨어지듯 빠른 소리가 많은 데다 격렬했다. 마우리아국의 전통음악은 강가강의 흐름같이 느리고 드넓은 평야처럼 때로는 부드러웠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꾸루국의 전통음악과 무희들의 춤에 흥미를 잃고 곧 자리를 떴다. 다르마도 궁녀들이 마련한 임시잠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군사들은 무희들에게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와아! 와아!"

무희들 앞에 수십 명이 달려 나와 미친 듯 춤을 추었다. 다르마의 잠자리는 강변에 마련한 흰색 군막이었다. 흰색 군막 앞에는 모닥불이 타올랐다. 밤공기가 차가워지자 락슈미띳사가 다르마를 위해 모닥불을 놓았던 것이다. 꾸루국 전통악기 소리와 군사들의 노랫소리가 강변까지 들려왔다. 다르마가 락슈미띳사에게 말했다.

"피곤하구나. 나는 뱃속의 왕자를 위해 지금 자야겠어."

"왕비님, 저는 모닥불을 더 피우다가 자겠습니다."

다르마가 군막의 문을 닫았다. 락슈미띳사는 혼잣말을 하면서 웃었다.

'그런데 왕자님이 아니고 공주님이면 어떡하지? 아니야, 빵갈로바뜨사 구루께서 왕자라고 예언했어. 운명을 아시는 구루시니까 틀림없어. 대왕님도 왕비님도 그렇게 믿고 있는걸.'

락슈미띳사는 장작개비들을 모닥불 위에 던지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모닥불에 던져진 장작개비들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탔다. 락슈미띳사는 한 걸음 물러서 쭈그리고 앉았다. 궁녀들은 어느 새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흰색 군막 뒤의 숲속으로 들어가 쇼 같은 것을 둘러쓴 채 잠든 것이 분명했다. 쇼을 둘러쓴 모습은 마치 누에고치 같았다.

밤새 이어질 것 같은 꾸루국 전통악기의 합주 소리와 군사들의 노랫소리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락슈미띳사는 잉걸불로 변한 모닥불 옆에서 쭈그리고 앉은 채 졸았다. 빈두사라왕의 친위대 보초병들이 피웠던 모닥불이 일제히 꺼졌다. 숙영지는 비로소 밤의 적막에 휩싸였다. 〈계속〉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❺ 구산선문의 선사상

▶ 한줄 요약
구산선문의 다양한 의미와 정체성의 특징으로서는 선과 교의 입장에 대하여 일치 혹은 융합보다는 선(禪)의 우위를 주장하는 차별의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禪 우위의 선교 차별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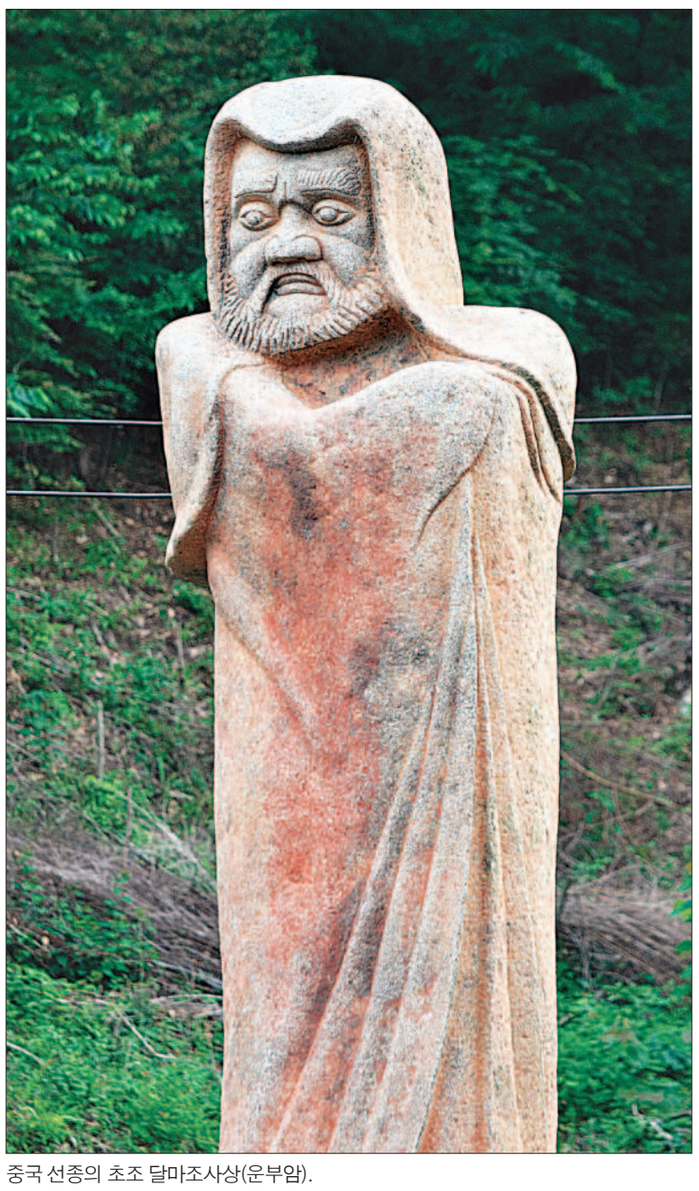
한국의 선종사에서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 곧 9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중반에 걸쳐 형성된 소위 구산선문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정체성은 다양하다. 곧 최초로 한국에서 형성된 선문이라는 점이 그렇고, 그들 산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서 선과 교의 입장에 대하여 일치 혹은 융합보다는 차별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그러하며, 가지산문(迦智山門)과 희양산문(曦陽山門), 동리산문(桐裏山門)의 경우처럼 산문의 개산조 내지 그 전승자에 대한 법맥의 난맥상이 그러하고, 중국 조사선 사상의 수입으로 인한 그 전승 혹은 전개에 따른 구산문의 사상적인 정체성에 대한 구명 등이 그러하다. 이 가운데 선과 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후로 한국선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교에 대한 선 우위의 차별 및 상호간의 일치 내지 융합의 면모로 전승되어 왔다.

우선 선 우위의 전통은 구산문 가운데 몇 개의 산문에 보이는 공통적인 요소로 전개되었다. 구산문으로부터 비롯되는 선의 우월의식은 나름대로 연유가 있었다. 그것은 교학에 상대하여 실질적인 우월이라기보다는 선의 수입이 초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신라의 땅에서 생장하려는 몸짓으로 자파의 존속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조사선법이 유입되던 시기에 신라의 불교계는 교학이 크게 발전하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선종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교학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 속에서 새로운 사조에 속하는 선법의 특수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보급하며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모종의 장치가 강구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선리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그것은 선법의 측면에서 교학과는 차별되는 입장에 대하여 선법의 우월성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선의 전통 가운데 구산선문에서는 성주산문 무염(無染)의 〈무설토론(無舌土論)〉, 사굴산문 범일(梵日)의 선교판석(禪敎判釋)에 따른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 가지산문의 설악도의와 화엄종의 승통 지원(智遠) 사이에 벌어진 문답의 내용이 전한다. 이들 내용은 모두 선과 교의 차별을 논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특색을 보여준다. 그것은 선법에 대한 몰이해의 사회에서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불법이었던 선법의 전승을 성취하기 위해 애썼던 몇몇 구법승들은 당시의 교학불교와는 다른 측면으로 선법을 홍통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것은 곧 선법이 교학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노력은 당시 교학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불교와 문물을 접촉하고 추구하려는 입당 구법의 열망과 부합되었다. 때문에 구산선문의 형성시기에 입당한 유학승들의 경우는 국내에서 이미 교학을 맛본 사람들이 그 대다수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는 특히 선과 교학의 차이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불법 곧 선법을 전승한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교의적인 장치를 고안해냈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곧 당시 유행하던 화엄교학과 조사선법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우선 설악도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몰종적(沒蹤跡)이라는 선법의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다. 가령 그 종취(宗趣)를 살펴보면 수행은 있지만 그 수행은 닦음이 없는 몰수(沒修)이고, 깨침은 있지만 그 깨침은 깨침이 없는 몰증(沒證)이라는 것이다. 곧 조사선법의 몰종적한 내용은 간접적으로는 서당지장과 백장회해의 영향을 수용한 것이었지만, 입당 유학승들에 의하여 초기선법의 전래부터 신라선의 특징이 되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몰종적의 사상적인 전승으로서 무념(無念)과 무수(無修)는 분별이 없고 조작이 없는 묘수(妙修)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본래성불(本來成佛)의 전통은 일찍이 보리달마가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에서 보여준 것으로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동일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 〈열반경〉과 〈능가경〉의 심법에 근거하여 이조혜가가 보여준 각성(覺性), 삼조승찬이 〈신심명(信心銘)〉에서 말하고 있는 신(信)과 심(心)의 관계, 사조도신이 〈입도안심요방편법문(入道安心要方便法門)〉에서 지시하고 있는 본래심의 유지, 오조홍인이 〈최상승론(最上乘論)〉에서 개시한 마음을 닦는 비결, 육조혜능이 〈단경(壇經)〉에서 내보이고 있는 본래자성의 활용방식, 남악회양이 혜능에게 답변한 것으로 본래청정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수행이고 깨침이라는 말, 마조도일이 상당법어에서 설파한 것으로 깨침은 분별의 수행을 초월했다는 말, 백장회해가 그대로 노출시켜 보여준 깨침의 당체, 황벽희운이 수용한 홍주종지의 대기(大機)와 대용(大用), 임제의현이 납자들에게 지시해준 주인공의 가르침에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이고 입처개진(立處皆眞)이 있었다. 이들 개념은 보리달마 이후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조사선의 일반적인 전개였다.

禪 우위, 생장하기 위한 몸짓
화엄교학과 조사선 비교 유행
'단도직입' 조사선법 우위강조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조사상(운부암).

도의가 말하고 있는 몰종적의 선법이란 바로 이에 본래부터 타고난 깨침의 자성과 그것이 활용방식인 무념(無念)과 무수(無修)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는 자연의 석가가 없고 천연의 문수가 없다고 말한다. 구산선문의 선리에 보이는 이와 같은 선교의 관계는 구산선문을 비롯한 다양한 산문을 통하여 점차 전법이 뿌리내리면서 선법의 측면에서는 교학과는 우월하게 차별된다는 관념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진정천책(眞靜天頙)의 〈선문보장록〉에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전한다. 그 가운데 우선 〈진귀조사설〉의 경우에는 선교차별이면서 동시에 선법 가운데서도 조사선법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으로 대표된다. 가령 범일이 진성대왕에게 답하여 선 · 교의 뜻을 판별해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명주 굴산사의 범일국사는 진성대왕이 하문한 선과 교의 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본사 석가모니는 태어난 이후에 설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먼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씩 걷고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은 후에는 성을 벗어나 설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별빛을 보고 깨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깨친 법이 궁극의 경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개월 동안 조사이신 진귀대사(眞歸大師)를 찾아 유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궁극의 뜻을 전승받았는데 그것이 곧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선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라는 여래가 진귀대사라는 조사에게 심인을 받았다는 것인데 석가여래와 진귀조사 곧 여래와 조사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중국의 선종에서는 조사선의 권위야말로 어떤 선풍보다도 우선이었고 보편적이었으며 부처님을 대신할 정도였는데 그와 같은 조사의 개념을 진귀조사라는 인물에 투영한 것이다. 여래의 설법과 조사의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교화수단을 비교한 것으로 여기에서 비교대상에 해당하는 여래선은 교학을 상징하기도 한다. 때문에 석가라는 여래와 진귀라는 조사를 등장시켜 그 접화수단의 차이를 비유한 것으로 조사선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점은 선교차별을 넘어서 선법 내에서도 접화방식의 경우에 조사선의 방식이 여래선의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모습으로까지 전개되었다. 곧 설악도의 시대 이후에 중국선종의 경우 소위 남종의 돈오적인 전통방식을 계승한 임제종의 흥륭으로 인하여 의리선(義理禪)의 전통보다 격외선(格外禪)의 전통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때문에 중국선의 전통을 강하게 수용했던 한국선의 경우에 임제종지만을 정통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방계로 간주하는 주장은 후대에 태고보우 및 나옹혜근의 어록을 비롯하여 청허휴정을 거쳐 환성지안과 백파긍선 등의 저술에서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무설토론〉에 의거하자면 무염은 직접적으로 선교의 차별을 설명하고 있다.

묻는다 : 유설(有說)과 무설(無說)이란 무슨 뜻입니까. 답한다 : 앙산혜적은 "유설은 불토(佛土)를 말한 것이므로 중생의 근기에 맞춘 법문이다. 무설은 선을 말한 것이므로 정법안장을 그대로 전승한 법문이다."고 말했다. 묻는다 : 중생의 근기에 맞춘 법문이란 무엇입니까. 답한다 : 선지식이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동자를 굴리는 것으로 법을 드러내는 것은 모두 중생의 근기에 맞춘 법문이다. 때문에 이것을 유설이라 하는데 하물며 언어이겠는가.

여기에서 교학은 혀가 있다는 것으로 설법을 의미하는 유설이고, 선법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혀가 없다는 무설로 대비되어 있다. 따라서 유설은 사십구 년 동안 설법을 해온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유하고 무설은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리달마의 침묵에 비유하였다. 이것을 유설의 경우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시설하는 중생의 근기에 맞춘 법문, 언설을 통하여 가르침을 베푸는 법문, 청정과 더러움을 분별하는 법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설의 경우는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충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 전승한 법문, 언설을 초월하여 이심전심하는 법문, 청정과 더러움의 분별조차 초월한 법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무염국사의 질문에 답변한 법성선사의 설명에도 선과 교의 차별의식은 농후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선과 교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상에 앉아 있는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정사에 임한다. 그러나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관리들은 각자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이에 신하들이 교학에 비유된다면 왕은 선에 비유된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성주화상(聖住和尙)은 항상 〈능가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사의 종지가 아님을 알고서 〈능가경〉을 그만두고 마침내 입당하여 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윤화상(道允和尙)은 〈화엄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화엄의 원돈의 가르침이 어찌 심인의 선법과 같겠는가"라고 말하고는 역시 입당하여 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능가경〉과 〈화엄경〉의 경우처럼 교학은 근본이 되지도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교외별지(敎外別旨)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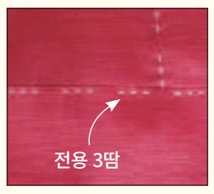
이들 내용은 모두 교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궁극적인 선법을 통하여 깨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다. 심지어는 선법의 내부에서도 다시 자상한 설명을 가하여 드러내는 소위 교학적인 여래선법보다도 단도직입으로 조사선법의 우위를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동국대 HK교수〉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❺ 아미타여래도 납의 문양



▶ 한줄 요약
고려불화에 사용된 금니 표현은 유려함의 극치다. 5cm 문양 다양한 형상들이 유려하게 그려지며 거대한 우주가 펼쳐진다.

유려함 극치… 인드라망 담아내다

파도치는 기쁨, 법계의 풍경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찬란한 빛을 발하며 푸른 연꽃 위에 아미타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다.(그림1) 그 몸체에서는 상서로운 빛이 발산된다. 다가가 세부 문양을 들여다보니, 700년이 넘도록, 금빛 반짝이는 문양은 여전히 너무나도 생생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려불화의 비밀은 '디테일'에 있다. 그 세부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찬란하고 화려한 마이크로 세계가 펼쳐진다.

아미타부처님이 두른 붉은 납의(衲衣, 가사 또는 대의)에는 동그란 원 문양이 가득하다. 원의 지름은 약 5cm. 이렇게 작은 원 안에 소우주가 펼쳐진다.(그림2) 불교미술에서 부처와 보살의 옷 문양은 반드시 '원 문양'이다. 세모나 네모 문양은 없다. 아주 가끔 다이아몬드 형태의 '육각(六角) 문양'을 볼 수 있다. 옷 문양이 원 문양인 이유는 깨달음의 세계는 크고 작은 원상(圓相, 또는 一圓相)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둥근 여의주'의 향연이기 때문이다. 육각 문양의 경우, 이를 귀갑문(또는 구갑문, 거북이 등짝 문양)이라고도 부르지만, 사실은 '물의 입자' 모양으로, 생명의 기본 단위가 되는 문양이다.

아미타부처님의 옷 문양을 따라 그려보면, 필선이 끊기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회전하는 기운이 소용돌이처럼 돌다가, 꽃과 잎사귀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다시 회전하는 문양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뻗어나가는 확장성은 우리를 거대한 우주 공간으로 안내한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우리를 우주 공간으로 빨아들이는 이 문양은 기껏해야 5센티미터 지름의 작은 원이라는 것을. 피어나는 에너지는 끊기는 곳 하나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환희로 가득하다. '유기성과 법열(法悅, 법의 희열)', 더 쉬운 말로 '어우러짐과 기쁨', 문양은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불교미술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로 파도치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특징은, 깨달음 세계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철학자 켄 윌버의 〈무경계(No Boundary)〉에 인용된 R.M.버크(캐나다 정신의학자)의 증언을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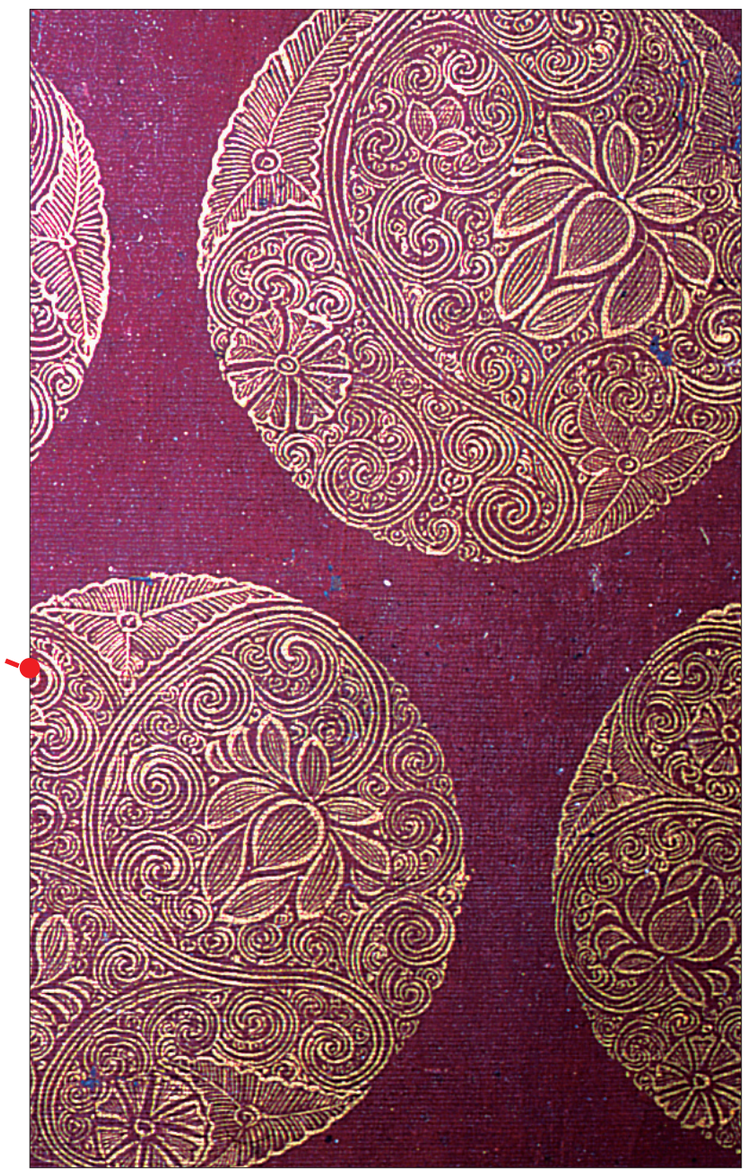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가 스스로를 재통합하고 있었다. 우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으로서 질서에서 질서로 이어져 가며 재결합하였다. 아무런 단절 없이, 단 하나의 빠진 고리도 없이, 모든 것들이 적시 적소에서 질서정연하게 이어져 있음을 보았을 때의 그 엄청난 기쁨! 모든 세계,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어우러져 있었다."

'제망찰해'의 모습

인드라망(제망, 帝網)의 세상. 모두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존재하는 장엄한 생명의 모습. 불교미술의 추상적인 문양들은 '제망찰해(帝網刹海)'라는 진리의 현상을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고 있다. 서로 의존하며 찬란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풍경이 망망대해처럼 파도치고 있다. 이것은 저 거대한 은하계에도, 내 몸에도, 또 한 톨의 모래알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기(緣起)'와 '무상(無常)'이라는 원리였다. 덩어리져 보이는 이면에 공통으로 흐르는 진짜 풍경. 만물이 그 실체를 드러낸 순간, 연기하기 세상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번뇌니 망상이니 하는 하루살이 허깨비들이 개입할 여지가 아예 없겠다.



그림①



그림②

유려한 금니, 영롱한 색감

보시다시피 고려불화에는 다량의 금니(金泥)가 쓰였다. 금가루는 금속성이다. 금속 가루에 민어 부레에서 추출한 점성 짙은 액체로 만든 아교를 섞어서 만든 안료다. 그러므로 수묵화의 묵선(墨線)처럼, 물 흐르듯 긴 선(線)을 한 번에 그릴 수는 없다.

금니를 평생 다루어보신 정향자 원로 사경작가는 "금니 선을 고려불화에서처럼 가늘고 길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금니 안료는 특정 온도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금방 굳어버린다. 그렇기에 소량을 조금씩 만들어가며 온도 유지를 해주어야 하고, 선도 길게 긋지 못해 아주 짧은 단선을 이어 긋기 식으로 그어 나가야 한다. 금니는 한 번 긋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올려 칠해주어야 광채가 나므로, 여러 번 끈기를 가지고 세필 작업을 해야 한다.

중국 원나라 학자 탕후가 지적하였듯이 "유려함이 극에 달했다"는 표현은 고려불화의 기법 상이 핵심을 매우 잘 포착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가늘고 긴 선을 금니로 그릴 수는 있다. 하지만, 관건은 '유려함'이다. 부드러움이다. 자칫 딱딱하게 표현되기 쉬운 금니 선을, 고려불화에서는 너무나도 일필휘지로 물 흐르듯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금니 선을 이토록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이 가능한가. 고려불화에 쓰인 어머 어마한 양의 금가루. 그 양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사용한 기법 또한 풀 수 없는 고려불화의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圖上 부처님 납의 문양 따라가면
5cm 안에 거대한 우주 펼쳐진다
금니 표현에 많은 양 금가루 사용
귀족불교 절정 보인 화려한 성보
'자미금색' 가장 고귀한 부처님 색

그림①. 일본 교토 선림사에 소장 중인 '아미타여래도'로 고려 후기에 조성됐다.

그림②. 정면으로 볼 때 부처님 왼쪽 납의(衲衣)의 문양들. 5cm 정도 안에 금니로 다양한 형상들이 세밀하게 표현됐다.

또 하나의 고려불화의 불가사의는 채도가 매우 높은 안료의 사용이다. 채도란, 색깔의 투명한 정도를 말한다. '채도가 높다'라는 것은 투명도가 높다는 뜻으로 '색이 맑다'라는 의미이다. '채도가 낮다'라는 것은 '색이 탁하다'라는 것이다. 옷 바탕색은 자색 빛이 도는 붉은 색이다. 매우 고급스러운 색감이다. 고려불화의 색감을 당시 중국 원나라 불화 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불화와 비교해 보면, 색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원나라 불화의 경우는 탁한 주홍색이고 고려불화는 자색 빛 풍부한 붉은 색이다. 파란색도 깊은 쪽빛이 도는 파랑이다. 그러므로 채도가 낮은 파스텔 톤의 색깔은 우리나라 불화에서는 금물이다. 아직도 수수께끼인 고려불화의 채도 높은 영롱한 색감! 안료를 비롯해 고려불화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아직 많다.

귀족불교의 정점, 찬란한 유산

남송은 무역의 성지로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라비아 중동의 물건까지 수입되었던 무역 중심지였다. 여기에서 최고 최상의 물품을 사가는 상인이 바로 '고려 상인'이었다. 고려불화, 하나만 보더라도 고려시대 귀족불교가 얼마나 호사스런 불사를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송나라 서긍이 고려의 수도 개경에 왔다가 비단 휘장이 온 경내를 뒤덮고 있는 호화 풍경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적혀있다. 또 고려청자 유약의 과도한 수입까지 가세하여 결국 국고는 텅텅 비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된다. 불교도 망하게 된다. 지방의 유생들이 청렴 정권을 내세우며 급기야 숭유억불 시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나라가 망하도록 최고급의 재료를 고수했던 작품을 목전에 보고 있다.(그림2) 세부를 보면, 눈이 시원해지는 청량감과 금빛 화려한 잔상이 가슴이 남는다. 천년 전통의 끝자락, 귀족불교의 마지막 절정을 찍은 찬란한 유산이다.

부처님의 색, '자마금색'이란

아미타부처님의 몸체에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 정토3부경의 내용이 한 몸에 담겨있다. 관무량수경의 하이라이트인 아미타부처님의 실제 모습을 관하는 '진신관(眞身觀)'을 보면, 몸체에서는 찬란한 빛이 나오고 무수한 화불(化佛)이 뿜어져 나온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몸과 빛을 관(觀)하라.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을 장식한 염부단금색(閻浮檀金色, 또는 紫磨金色)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니라"라고 기술되었다. 조형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처님 육신의 색깔은 반드시 황금색이다. 여타 경전에서도 부처님 몸체를 표현할 때 '염부단금색' 또는 '자마금색'에 비유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여기서 '부처님의 몸은 어째서 황금색인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마금 또는 자마황금은 염부단금과 같은 말이다.

자마금은 신비로운 자색(紫色), 즉 보라빛이 도는 지구상의 가장 고귀한 황금으로, 인도 염부수 숲속을 흐르는 강바닥에서 채취되는 사금이다. 총 9등급으로 나뉘는 황금 중 최상 품질의 금을 지칭한다. 완전한 깨달음의 상징인 제7차크라(백회 차크라)가 열릴 때, 그 색은 보라색 · 금색 · 흰색인데, 이것을 부처님의 색깔인 '자마금색'으로 표현한다. 사실, '깨달음의 빛'을 정확하게 나타내거나 비유할 만한 것이 이 지상에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편 삼아 표현하자면, 자마금색이 되는데 이는 지상 최고의 고귀한 색으로 간주된다.

〈중앙승가대학 교수〉





박원자의 母情佛心 ❺ 김인숙 前불교여성개발원장 어머니



▶ 한줄 요약

한국불교 1세대 대보살로 불리고 있는 명원 김미희 여사는 쌍용그룹 창업주의 아내보다는 사회운동가, 차 문화 연구가 및 보급자로 더 알려졌다. 그의 큰 딸인 불교여성개발원 2대 원장 김인숙 보살(국민대 명예교수)를 만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낌없이 다 내주고 가라"



그림 · 박구원

한국 1세대 보살 명원 김미희
일지암 복원 등 茶 진흥 힘써
전국 사찰 불사도 큰 힘 보태
마지막까지 타인 도운 원력들
김인숙 · 김의정, 두 딸이 계승

불가에서는 여성신도, 특히 어머니들을 보살이라 부른다. 여자는 어머니일 때 보살에 가장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무아를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분별심을 여의어 탐욕을 부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나'도 '나의 것'도 없다. 내가 소유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평등함을 알고 이를 실천한다.

'세상의 어머니'로 불리는 보살이 있다.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들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다. 세상을 향해 내가 지닌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화된 사찰을 복구하는 데 수십, 수백 포의 시멘트를 보냈고, 절에 불경을 보시해 문서포교에 앞장섰다. 말년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나라 차(茶)의 본산지인 일지암 복원에 앞장섰고, 조계사 신도회장직을 맡아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진 힘을 아낌없이 쓰고 갔다.

현대 한국불교 1세대 대보살로 불리고 있는 명원 김미희(1920~1981) 여사가 그 주인공이다. 쌍용그룹 창업주의 아내보다는 사회운동가, 차 문화 연구가 및 보급자로 더 알려진 보살이다.

명원 김미희의 큰 딸로 어머니의 보살행을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는 불교여성개발원 2대 원장 김인숙 보살(국민대 명예교수)을 만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든셋의 딸이 추억하는 어머니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본받아야 할 '참 보살'의 모습 그대로여서 감동 깊었다.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했다.

"따님이 보셨을 때 어머니의 불교는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요?"

"말보다는 실천이 앞섰던 분이세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도와주셨죠. 일 분도 안 걸렸어요. 뭘 재어 두질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러셨죠. 네 엄마는 간이 몸속에 있어 다행이지 밖에 있었으면 큰일 냈을 거라고 했죠. 일 년에 중소기업 하나씩은 없애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당신 것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했던 어머니가 타계하시고 보니 자신 앞으로는 땅 한 평, 집 한 채 남기지 않으셨다. 착오가 아닌가 하고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왔을 정도였다. 다만 안방 서랍에서 수 십 개의 적금통장이 나왔는데, 통장의 주인이 집에서 일하는 찬모, 정원사, 운전기사 등의 것이었다고 하니, 가히 보시의 화신이 아니었을까 싶다.

장마가 나면 피해를 입은 전국의 절에서 전화가 왔고 어머니는 쌍용양회에 전화를 해서 바로 다음 날 절에 시멘트를 보냈다고 한다. 서울 신문로에 있던 집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김 원장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이 여관처럼 바뀌어있었다. 담벼락 위에 2층으로 방을 지어 아버지 고향에서 공부하러 올라온 일가친척들을 묵게 하고 있었다. 아침에 준비해놓은 도시락이 몇 십 개였다. 하루 백여 명이나 드나드는 식객들을 위해 밖에 따로 지어놓은 식당에서는 하루 종일 국과 찌개가 끓고 있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밥을 먹었다. 하루 한 가마니의 쌀을 소비할 때도 있을 정도로 아침부터 신문배달, 구두닦이, 동네 순경, 우편배달부, 지나가던 동네 기사들이 와서 따뜻한 밥을 먹고 갔다.

어머니는 스님들만 도와준 게 아니었다. 여름에 골짜기에 가족들이 놀러가는 날이면 가족 수보다 다섯 배 정도의 음식을 더 만들었다. 수십 인 분의 음식을 만들어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돌아왔다. 남은 것은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게 어머니의 명이었다.

"우리 어머니 통이 큰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당시 '부탁할 일이 있으면 서울 신문로에 사는 김미희 보살을 찾아가' 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하니, 보시를 행하는 품이 얼마나 드넓었는지 알 수 있다.

"어머니께선 따님들에게 어떻게 불심을 심어주셨죠?"

"어머니는 스님들을 지극히 공경하셨어요. 집에 스님들이 오시는 날이면 우리를 불렀어요. 스님들께 절을 올리게 하고, 불사에 필요한 심부름을 시키셨죠. 음양으로 불사를 돕게 하면서 불심을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법정 스님과의 일화다. 3명의 젊은 스님들이 어머니를 찾았다. 유난히 바짝 마르고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던 스님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법정 스님이었다. 법정 스님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봉은사에 있을 때였다. 서울 생활을 끝내고 송광사로 들어가려는데 토굴을 지을 불사금을 희사해 주었으면 하는 청을 넣으러 온 것이다.

"토굴을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스님들은 자신들이 그녀를 찾은 이유를 말했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긴 말을 싫어하고 요건만 간단하게 듣고 말하는 게 어머니의 대화방식이었다. 당시 한옥 3채 값의 시주를 약속하면서 그 자리에서 두 딸들에게 명했다.

"너희가 오분의 일씩 마련하고 나머지는 내가 드리마."

스님들이 바람처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한 불사금으로 불일암이 지어졌다. 한두 해 후 어머니는 일지암 복원을 위해 지리산을 다녀오면서 불일암에 들렀다. 그리곤 돌아와서 두 딸들을 불러 이렇게 흡족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빨아서 솥뚜껑에 올려놓은 행주며 바닥은 또 얼마나 청결한지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어도 괜찮겠더라. 화장실도 볼 일을 보고 솔잎으로 덮어놓게 해놓으셨더구나. 비구 스님도 그렇게 깔끔하게 살림을 하는데 여자들인 너희는 그 살림이 뭐꼬?"

김인숙 원장이 어머니를 통해 특별히 기억하는 수행자는 잠실 불광사를 지은 광덕 스님이다. 불광사 불사를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광덕 스님의 모습은 법복을 입은 한 마리의 학과 같은 모습이었다. 창백한 낯빛에 곧 쓰러질 것처럼 약해보였던 광덕 스님은 불광사 불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때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 쏟아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절을 짓는 데 필요한 시멘트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김 원장이 동생인 김석원 회장에게 얘기해 어머니의 약속이 실현되게 했다. 근 한두 주 동안 시멘트를 실은 레미콘이 몇 십대가 동원되어 전달되었다.

광덕 스님의 불교의 현대화에 대한 깊은 발원과 포교 열정이 꽃을 피우는 데에는 어머니의 보시가 큰 몫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를 보면서 딸들의 신심도 커졌고,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보시행을 실천하게 되었으리라. 3남 3녀의 장녀인 김인숙 원장과 차녀인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전국신도회 전 회장)이 어머니의 불심을 물려받았다.

"저는 어머니에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자비심을 배운 거 같아요. 학교에 근무할 입시철이 되면 떡을 해서 수고하는 교수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드렸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제 연구실 열쇠를 주어 제가 학교에 안 나오는 날 들어와서 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불교 책을 가장 많이 빌려가서 읽었고 제가 은퇴할 때 가장 서운해 하셨죠."

김원장은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유학을 다녀와 국제부인회 복지 담당 임원으로 있으면서 사북 탄광촌 아이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보내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어머니의 기도수행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어머니의 기도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회활동을 거의 차단하고 아침마다 천수경과 금강경 등의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셨죠. 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독송테이프를 틀어놓았어요. 정원의 새들과 연못의 물고기들도 경전소리를 듣고 해탈하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머니는 인과를 철저히 믿으셨어요. 인과응보에는 에누리가 없다면서 자기 업장은 자기가 없애야지 남이 대신 갚아주지 못한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일찍 타계하시자 슬퍼하며 우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모자라 아버지와의 인연이 너무 짧았으니, 앞으로 더 참되게 살아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긴 인연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인과법문이었다. 인과법을 알면 원수를 두어서도 안 되겠고 오늘 여기서 선한 인연을 만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인과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곧 불교임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이다.

말년에 어머니가 지병인 간경화로 거동이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조계사 신도회장직을 맡았다.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일렀다고 한다.

"내일모레 죽을 할마씨한테 신도회장을 맡겼을 때는 좋은 일을 좀 더 하라고 한 것 아니겠니? 죽기 전에 내가 좋은 일 좀 하려고 맡은 것이니, 반대하지 말아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설혹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믿었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보시 실천에 앞장섰던 어머니였다.

누리는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받드는 권력은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한다. 받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다. 김인숙 원장이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

〈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중생 근기 살핀 부처님 설법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⑨ 수기설법(隨機說法)

"가섭이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의 산천, 계곡, 토지에 생겨난 초목과 수풀과 온갖 약초들이 그 종류에 따라 이름과 모양이 다르다 해도, 구름이 가득 끼어 온 세계를 뒤덮어서 한꺼번에 비를 뿌리면 그 혜택이 초목과 숲과 여러 약초에 골고루 미쳐지나니 크고 작은 여러 나무나 풀, 약초의 크기에 따라 제가끔 비를 맞아, 한 구름이 내린 빗물을 흡수 각각 생장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나니, 비록 한 땅에 나며, 한 비에 젖어도 여러 초목이 자라는 것이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가섭이여, 알아라. 여래 또한 이와 같아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하늘에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을 내어 인간과 천상, 아수라에까지 두루 들리게 하는 것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 뒤덮는 것과 같다. 그리고 중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니, 제도 받지 못한 자를 제도하며, 알지 못한 자를 알게 해주며,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하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자를 열반을 얻게 하리라. 지금 세상이나 다음 세상을 사실 그대로 알아,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며, 일체를 보는 자며, 길을 아는 자며, 길을 열어주는 자며, 길을 말해 주는 자이니, 너희 인간과 천상, 아수라 등은 법을 듣기 위해 모두 여기로 오라.' 고 하나니, 그때 무수한 천만 억 중생이 부처님 처소로 찾아와 설하는 법 듣느니라.

여래는 어느 때나 모든 중생들 근기의 우열과 부지런히 정진하고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낱낱이 살펴, 그 능력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 한량없어, 모두를 기쁘게 해 좋은 이익 얻도록 하느니라. 중생들이 법을 듣고 현세에서 편안하며, 죽은 뒤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로써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법을 듣게 되어, 모든 장애 떠나 여러 법 중에서 제각기 능력 따라 차츰 도에 들게 되나니, 큰 구름이 모든 것에 비를 내려, 꽃과 나무 풀과 숲 그리고 온갖 약초들이 종류에 따라 넉넉히 비에 젖어 자라나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약초유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다. 구름이 비를 내려 초목, 수풀, 약초가 자라게 하듯이 부처님이 온갖 법을 중생들에게 근기에 맞게 설하여 제도하고 안락을 누리게 한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수기설법(隨機說法) 혹은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 한다. 이 말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해주고 기회를 봐서 법을 설해준다는 말이다. 보통은 근기(根機)를 상(上), 중(中), 하(下)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왔다. 근기는 한자로 '根器' 라고도 쓰는데 사람의 그릇됨을 나타내는 말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법화법문 곧 일승법(一乘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최상의 근기라고 한다. 소승을 하근기로 취급하면서 소승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교상판석(敎相判釋)하면서 천태는 5시설을 내세우며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로 경전을 설한 시기의 선후와 그 경전에 설해진 법문의 수준을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처음 설했다고 말하는 〈화엄경〉과 맨 뒤에 설했다고 하는 〈법화경〉이 경전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승(二乘)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법문이라는 것이다. 근기가 낮으면 알아듣기 어려워 못 듣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법화경〉을 설할 때 사부대중 오천 명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사람은 성장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교과서 수준과 중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대학교의 교과서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경전을 판석(判釋)하면서 경전의 수준 차이를 등급으로 매겨 평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교상판석인데 중국불교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시 하였다. 물론 현대 불교학에 있어서 이 교상판석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도 있지만 소승경전이 대승경전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궁극적으로 정직함 추구하는 것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⑨ 불망어계의 실천

오계 가운데 네 번째인 불망어계(不妄語戒)는 '망령된 말' 또는 '그릇된 말'의 절제와 관련이 깊다. 앞의 세 가지 계(불살생계, 불투도계, 불사음계)가 육체적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이 계는 언어적 행위에 대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불건전한 의도로 정신적 혼란이나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형태의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맹렬히 비난하지만,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폭력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언어적 행위이다. 이를테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아첨하는 말, 흉보는 말, 깔보는 말, 거친 말, 헛된 말 등을 하는 것이다. 설령 상대방을 훈육하거나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계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말 가운데 특히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시 말해 거짓을 진실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켜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속이려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말로써 다른 사람의 선(善)을 파괴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기만하려는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는 말과 행의 의지이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거짓 그 자체이며, 둘째는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셋째는 기만하는 데 사용된 육체적 · 언어적 시도이며, 넷째는 메시지의 이해이다.

이 계를 어김으로써 야기되는 죄의식의 정도는 거짓을 말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익의 정도와 기만당한 이의 미덕에 따라 달라진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익이 커질수록 죄의 무거움도 증가한다. 거기에 미덕을 갖춘 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이에게 한 거짓말보다 더 큰 죄를 낳는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거짓말은 자신이나 타인,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진실이 가려지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자각하는 한편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것을 가르친다. 만약 거짓에 익숙해져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매사에 정직해야 하며, 어디서나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습성은 정확하게 사고하는 습성에 달려 있다. 정확히 생각하고 정확하게 말하려는 노력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또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가려져 있을지라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확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게 된다면, 그는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불망어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직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거짓인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직한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⑨ 베다

구전된 인도 최고 문학

불교전승에 따르면, 싯다르타는 어린 시절 힌두경전인 베다(Veda)를 공부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베다는 그 전승과정에서 매우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이자 경전인 베다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거의 4천 년 전에 인도-아리아인들이 인도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빚어낸 종교문학이었다. 의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이 베다문학은 처음부터 입으로 창작되고 입으로 전승된 완전한 구비문학(口碑文學)이다.

입을 통해 창작되고 전승되었지만, 이것은 문자를 모르던 대중들의 문학이나 그들의 언어로 창작된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이것은 사제계급이었던 브라흐만들의 창작이며 또한 그들 계급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인들의 문학이었다. 구전문학이었지만 대중에게 쉽게 전달될 수 없었던 문학이었다. 이런 점에서 구비문학이나 구전문학이 훨씬 대중적이라는 통상적 인식은 고대 인도의 문학에 적용할 수 없다.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에 이 전문 사제들의 문학들은 더 폐쇄적으로 그 사제계급 사회에서만 유통될 수 있었다. 정보의 관리가 더 수월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베다문학의 유통과 관리의 주체였던 브라흐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베다문학의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 베다의 가계(家系) 혹은 계보(系譜)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베다' 라는 문학은 어떤 고대 인도사회의 사제계급 지식인들이 시적 감흥에 젖어 마구 신의 찬양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모든 브라흐만 전체가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브라흐만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어떤 특정한 베다문헌의 계보에 소속되어 그들에게만 전승되어 오던 베다만을 익혔던 것이다. 자신이 속하지 않았던 가계 혹은 다른 계보 속의 베다는 공부하지도 않았고, 익힐 수도 없었다. 베다 문학이라고 해서 모든 브라흐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오직 자신에게 속한 베다 문학만을 학습하고 전승했을 뿐이다. 따라서 베다 문학 전체는 다수의 특정 가계들이 대대로 전승해오던 문학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계 혹은 계보를 우리는 "샤카(śākhā)"라고 부른다.

여기 어떤 한 브라흐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가문이 옛날부터 리그베다만을 익혀왔던 호뜨리(Hotṛ) 사제였다면, 그의 아버지와 조상들도 동네 어디선가 큰 제사가 열리면 그곳에 불려가 사마베다나 야주르 베다를 암송하던 다른 사제들 가운데 섞여서 리그베다의 구절들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리그베다를 전승하는 가계라 할지라도, 각기 그 문헌을 암송하고 전승하는 방식이 달라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승방식이 존재했었다. 따라서 리그베다를 전문적으로 암송하는 브라흐만 사이에서도 그 문헌의 전승 방식에 따라 여러 계보(샤카)가 나뉘어 존재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브라흐만의 가문이 리그베다를 전승하던 샤깔라(Śākala)라는 학파(샤카)에 속해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브라만은 샤깔라 학파의 전승방식으로 리그베다를 공부해야할 것이다. 이 브라흐만이 사는 동네의 강 건너편에 리그베다를 전승하는 또 다른 학파가 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바슈깔라(Bāṣkala) 학파가 존재했다면, 그는 자신의 자손이나 후학에게 강건너에 있는 리그베다 전승방식을 배우게 할 수는 없었다. 물론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리그베다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기억하는 방식이 서로 달았다.

다시 말해 베다의 발음법에 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가계, 혹은 학파가 존재했던 것이다. 과거에는 리그베다 문헌을 전승하는 학파들이 수십여 개가 있어도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대동소이 했었다. 하지만 리그베다를 암송하면서 생기는 발음에 대한 견해만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리그베다는 철저하게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낭송 상태의 음성현상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베다 학파마다 쁘라띠샤카(prātiśākhya)라는 음성학적 규정집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소리에 대한 인도사람들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31호 | 17 | 전면광고

복이 있으면 즐거우나 복이 없으면 괴롭다.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복을 닦아야 안락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010-5883-2255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 010-5270-8260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퓨전한식 배달점 모집

돌할매밥, 콩새싹 오골밥
저염비지김치, 라면김치.
시. 구. 동. 별. 인구비례 권리금.
등본. 사진. 이력서. 퓨전한식 계약서.
농협351-1109-7426-43 토속불교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155-28
한식과학원 043-744-9997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 행자승(20세 ~ 45세)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절에서 요양삼아 기도하고 소일하며 가족같이 지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경기도 양평 기도영험도량 **천인사**
031)773-7746 , 010-8777-1775

수목장 동참인 모심

대한불교진조계종 토굴
백장사에서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위 부지에 소규모로 조성된 수목장, 추모공원 관리에 동참하실 주지스님과 재가자를 모십니다.
대표 유담 합장 010-4501-2315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3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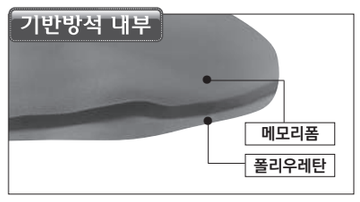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31호 | 18 | 전면광고

불자여! 작은 선(善)이라도 복이 되지 않는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큰 그릇을 채우는 법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자비도량참법》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300평
◎건평 : 100평,외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매가 : 40억

◎위치 : 경남
◎종교용지 : 약1800평
◎건평 : 40평외전각
◎종교시설, 요양시설추천
◎매가 : 8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버스정류소 1분) ●부지 : 1천평, 건물 : 400평
●가액 : 39억
●佛敎의現代化,佛法의生活化,布敎의大衆化 ●불교컨벤션 ●명상힐링캠프 ●불교복지시설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를 선도(先導) 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대지 230평(임대)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2동. 범종각
●영산강 전망이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보증금 500만, 월 45만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법당: 55평 ●요사: 75평
●대지: 500평 ●임야: 4천평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합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가액 5억5천만원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층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금 2천만원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가액 : 37억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가액 : 3억 1천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지리산 작은암자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포 교 원 안 내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010-3714-1018

멋진토굴(급)안내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3과(매매시 기증) ●가액:3억(대출6천만원 포함) ●전.월세가능(1억50만원)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사 찰 안 내

●위치 : 제천시 중심가
●대지 약 80평
●법당 15평 한옥요사채 30평
●수행과 포교 적합한 곳
●가액 : 1억 5천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478-3234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30평, 산168-2번지 4,130평)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포 교 원 할 분

●서울 강서 화곡동 시장 옆 20평
●보 300, 월 45 코너 남향
●공양주, 부전 일할분, 쓸분
●결혼할 분 모십니다.

010-5381-141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빠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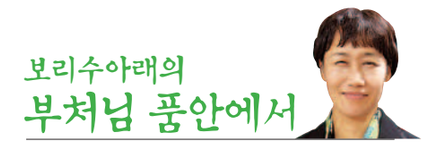
관음원(연화부원)

이 도상은 일반적으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존형(尊形)은 황금색을 하고 있으며, 얼굴은 27면(面)과 천수(千手)를 가졌는데, 27면은 지옥에서 무색계까지 25유의 중생윤회 세계를 제도해 고통서 벗어나게 하며, 정상 중앙에는 아미타불이며, 나머지는 모두 보살상이다. 천수에는 중앙의 큰손 42수를 강조하고 있다. 양쪽2수 3수는 합장과 수인을 하고 나머지 각각에는 각종 지물은 일체의 중생들의 서원을 구비하여 과덕을 얻게 한다.

관음보살의 서원은 자비를 세워서 천의 손과 천의 눈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존으로서 자(慈)의 원력으로 중생의 즐거움을 주고, 비(悲)의 원력으로 중생의 고(苦)를 없애 주는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유정(有情)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수행 방법으로는 신밀(身密)로서 천수관자재보살의 수인과 각종지물들을 관상하고, 어밀(語蜜)로서 진언(眞言)및 종자(種子)를 암송하고, 의밀(意密)로서 지혜와 삼매(三昧)에 들어 통찰하고 완성을 이룬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⑤ 장애불자들의 도반 이계경 씨

아무 조건없이 장애불자와 함께해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다. 모든 생명들이 생장할 준비를 하듯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달이다. 보리수아래가 장애인들과의 월례 법회, 봉축 공연, 템플스테이 참여, 음반 제작 등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도울 자원봉사 활동, 재능기부, 후원 등 유형무형의 도움이 필요하다. 올해는 어떤 이들이 보리수아래와 인연을 맺고 장애인들의 동행이 될까 하는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게 되는 시기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상구보리 하화중생, 바라밀, 사무량심, 사섭법 등의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행으로써 자비 실천을 하고자 하는 불자들이 많다. 하지만 보리수아래와 같은 작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전화를 걸어 관심을 보이다가도 제반 설명을 하면 다시 연락이 오질 않거나 마지못해 한번 하는 도움을 주는 일도 있고, 어떤 이는 사진만 찍어가 자신의 기관에서 한 행사처럼 도용하는 예도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장애 불자들을 도우며 오랫동안 동행이 되어주는 이들도 있기에 감사하면서 장애인 포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조계종 전문포교사이자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인 이계경 씨가 바로 물심양면으로 장애불자들을 도와 온 좋은 예이다.

이계경 씨와 보리수아래의 인연은 그녀와 내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에서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보리수아래의 봉축 공연에서 장애인들의 시낭송 도움으로, 화엄사 등 사찰 순례, 대만중증장애인 불교문화 순례 등에 동행, 종교와 장애에 대한 작은 세미나에서 사회와 발표자로 참여하였는데 자신의 손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 도움을 주고 있다. 아름다운 청년 영관 씨, 행복한 미소천사 인제 씨, 이쁜 아가씨 소영 씨, 특별난 시인 훈소 씨, 맘씨 좋은 순애 씨 등 회원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주어 늘 분위기를 환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계경 씨는 또한 봉은사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아 전법포교에 힘쓰면서, 조계종포교사단 교정교화팀, 무소유실천팀, 홍보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전법 신행 봉사를 하며 학문의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에서 명상상담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큰 신심에 감동을 받았다.

인터넷 줌모임으로 시작한 보리수아래 2월모임에서 오랜만에 장애불자들을 만난 이계경 씨는 "법우님들의 밝은 미소를 만나니 봄기운이 감돌듯 훈훈하다, 너무 반갑다"면서 한사람 한사람 안부를 묻기도 했다.

사실 불교계에서 장애불자와 장애인 포교에 관심도는 높지 않다.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의 설치가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 정보와 지식이 없어 환경조성이 어려워 엄두를 못 내는 사찰이 많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장애인 포교에 도움을 주는 일을 너무 크고 어렵게 여겨 되레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계경 씨를 비롯한 개인이나 불교 관련 단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장애 불자의 활동과 포교에 힘이 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는 전법회관 3층에서 보리수아래가 월례법회를 하도록 장소제공을 해주었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에서는 포교사인 내가 법회 시 장애 때문에 목탁집전이 어려운 것을 알고 포교사를 파견해 돕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자원봉사자가 없어 곤란을 겪을 때마다 자원봉사자 파견과 후원을 해주기도 한다. 장애불자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불교계 신문과 방송사 등 각 언론사들도 장애인 포교를 하는 데 큰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 스님을 비롯한 재가신행단체와 불자들의 십시일반 후원은 장애인 포교와 장애불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키워 여러 분야의 포교에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장애 불자들을 돕는 소식이 널리 알려진다면 자연스럽게 장애인 인식개선과 포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불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법회에 동참을 하거나 자신의 절에 오는 장애인을 반가이 맞아주는 일, 공연에서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손이 필요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일 등은 모두 어렵지 않은 일이다. 쉬운 것부터 장애불자에게 마음을 여는 불자들과 스님들이 늘어나는 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에서 장애불자의 시낭송을 돕고 있는 이계경 씨(오른쪽).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신 화 불 사
급 매
충주시 노은면 소재(위치좋음)
대지 300평
법당 20평, 요사채20평,
산신각 8평, 토굴, 기도, 굿당등
사용가능 (상태양호)
양도가 : 9,000만원 (지상권)
1년 40만원 (도지세)
신화불사 합장
☎ 010-6545-202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극락사
• 주 지 : 상우 (속명 : 김양수)
• 주 소 :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황룡재로 78-2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❺ 제인 로버츠, "세스 매트리얼" ①



▶ **한줄 요약**
꿈은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된다.

안보이는 존재와 교신, '채널링' 원조



제인 로버츠(Jane Roberts, 1929~1984)는…
시인이자 작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 '세스'와의 채널링을 통해 의식확장을 추구하는 모임을 갖고, 이 모임(세션)의 기록을 여러 책으로 남겼다. 서구인들에게 윤회 전생의 개념을 심어주었고, 다차원적인 존재로서의 참자아에 눈뜨게 하는 촉매가 되어 주었다. 세계를 리드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온 그의 채널링 저서들로는 〈세스 스피크스〉, 〈마음의 본질〉, 〈알려지지 않은 리얼리티〉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세스 매트리얼〉, 〈육체가 없지만 나는 쓴다〉가 출간되었지만(서민수 역) 현재 절판된 상태이다.



꿈,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물음표야말로 의식 확장의 첫걸음이자 도약대인 것이 분명한데도, 그 물음표가 본격적으로 삶 안에 똬리를 틀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 같다. 이 지구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나'라는 존재와 세상살이에 의문을 제대로 품어 보기도 전에 개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어른들의 길들이기 작전에 쉽게 포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거의 모든 아이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싸여 근본에 대한 물음표를 스스로 제기할 힘과 여유를 잃어버린 채 '떠밀려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기 일쑤다.

물음표가 없는 인생은 짐승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지만, 물음표가 알이 되고 그 알이 깨어나서 느낌표가 되기 위해서는 선승들이 화두를 품는 것 같은 치열한 일련의 과정이 요구된다.

'채널링'이라는 낯선 형식을 통해 선잠에 빠져 있는 인류를 깨우는 말들을 지상에 씨 뿌리고 간 제인 로버츠의 업적 또한 물음표에서부터 시작된다.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물음표였다. 시인이자 작가였던 그녀는 예지몽을 자주 꾸었던 것 같다. 세상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만남이라는 것이 무수히 일어나게 마련이고, 세상의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들이 겹친 끝에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꿈은 어떻게 해서 직선적인 시간의 질서를 뛰어넘어 족집게처럼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까?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질서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인간은 예지적인 꿈을 꾸고 나서도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겼다고 믿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꿈이 어떤 일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길몽을 꾸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흉몽을 꾸어서 나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길몽이든 흉몽이든, 꿈과 현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수가 없다. 꿈을 꾸게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면, 꿈의 주관자는 시간의 질서를 뛰어넘는 '전지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교류로 의식 확장

1963년, 작가인 제인 로버츠는 34살, 그녀의 남편인 룹은 44살이었다. 그들은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한 지 9년째였다. 그들은 꿈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서점을 들락거리며 해답을 구했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해 줄 적당한 책을 발견할 수 없었다.

룹의 제안에 따라 제인은 '위저 보드'를 통해 직접 해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위저 보드란, 트랜스 상태에서 저세상의 소리를 직접 받아 적는 서양식 '점판'이다.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묻고 해답을 듣는 과정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세스'라고 부르는 한 존재를 만나게 된다.

실험이 계속됨에 따라, 제인은 위저 보드를 통해 한 글자씩을 점지해 듣는 답답한 과정을 건너뛰어, 마음속으로 말을 한꺼번에 전해듣는 능력을 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 속에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 1963년에 시작된 이 실험은 1966년 "당신의 초능력을 발전시키는 법"이라는 책으로 출판되기에 이른다.

1963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제인은 세스와의 이런 만남을 계속하고, 1996년까지 모두 23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중 일곱 권은 세스가 직접 기획 구술한 것이고, 두 권은 룹이 함께 참여하여 제인이 죽은 후 출판된 것이다.

일회적 삶에 길들여진 서구인
윤회 전생과 다차원적 존재로
진실에 눈뜨게 하는 새 장치를

제인은 세스와의 만남을 통해, 3차원의 현실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다른 현실들을 엿볼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란 더 깊은 다른 영역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게 된다. 그녀는 또, 전통적인 용어들로 자기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현상을 3차원의 현실 시스템에 한정짓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의 행위들은 사실 우리의 근원적인 자아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의 에너지와 생명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초점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3차원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다른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앎을 확장할 수 있고, 그로써 다른 현실들이 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1)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2) '영원한 현재'에 살라.
3) 우리는 무의식에 떠밀려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4) 우리는 '창조'를 표현하고 있는 신들이다.

세스의 메시지들은 수많은 생을 반복하여 살아간다가는 윤회 전생의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고, 지구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몸 말고도 다른 차원에서 다른 현실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의 질서 또한 결코 직선적인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여러 가능태들 중의 하나일 뿐임을 강조한다.

여러 책과 녹음 테이프 등을 통해 전해진 세스의 말들은 지인이 되어 그동안의 물질주의적인 관성과 매너리즘에 물든 서구인의 가슴을 찢어놓았고, 이후에 더욱 번성하게 된 불교와 양자물리학과 손을 잡고 동서 통합의 철학 및 종교를 잉태하고 길러내는 초석이 된다.

세스의 말이 전하는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전혀 생경한 것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말들이 낯설고 새롭게 들리는 것은 상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방법이 달라져서 지구에서의 내 경험에도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빛의 존재'의 바람을 선연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다차원의 '나'에 눈뜨라

당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세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실 '나'는 수많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육체를 띠고 있는 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나도 있습니다. 육체를 갖지 않은 채 의식으로서만 존재한다고 하면 당신은 이 세상이 아닌 저승만을 연상하곤 하지만, 육체를 갖지 않는 의식이 한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 하나의 별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당신이 죽은 다음에 즉각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그런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이런 특별한 존재 상태가 되려면, 당신들은 아마도 태어나고 죽는 일을 여러 차례 겪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없이 살고 죽는 일을 되풀이했다고 말하면 무슨 활극을 연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죽음을 경험해 보았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차원, 다른 존재로서의 경험도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 터득된 지혜와 앎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스의 눈에 비친 지구인은 대부분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블록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시야가 그렇게 제한된 상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의 블록이 지구인에게는 정말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개념은 더 큰 블록을 쌓아 올리는 놀이 정도에서 멈추어 버린다. 어느 날엔가 '아이들의 장난감' 따위는 한쪽으로 치워 버릴 것이지만, 지금은 온통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육신을 지녀야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은 우리의 지구가 형성되기 오래전에도 존재했었다. 의식은 물질의 바탕을 이루는 힘이다. 의식은 물질적인 것 이외에도 다른 수많은 현실들을 지어 나간다. 우리 자신의 견해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이 존재의 규칙이자 양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물리적 현실을 전부라고 인식하여 에고를 지나치게 발전시키고 특화시켜 버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접촉 지점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나 자신을 넘어선 곳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 인간의 현실과 경험을 넘어선 곳에, 인간의 말로는 번역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참자아에게 있어서, 물리적 현실이란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 내뿜어진 하나의 따뜻한 숨결처럼 연약하고, 덧없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 변장을 한 채, 자신이 변장하고 있음을 얼른 알아차리기 어려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현실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당신이 알고 실감하는 '현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현실이 있고, 현실의 시스템들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는' 차원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출입구를 통해서 당신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스는 우리에게 말한다. 시스템에 갇혀 여러 경험의 하나일 뿐인 작은 부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고, 차원의 출입구로 가라고. 그래서 더 확장된 의식으로 현실의 억압당하는 피지배자 신세에서 벗어나서 마스터가 되라고. 그것이 당신들 자신이 성취해야 할 운명의 궁극이라고. 〈작가〉





대행 스님

왜 자유롭게 살지 못하십니까, 하나하나 끄달리면서!

어저께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그 후의 말이라든가 모든 이치를 거기에서, 현실 나에게서 모든 만법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중략)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실 때에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어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거냐? 그것이 한계가 없는 거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점의 마음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라는 이 한계가 없는 한 점은 한 점조차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 있으면서도 바로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세울 수가 없는 소소영영한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저께 접착 얘기를 했죠. 접착제는 자연 광대무변한 접착젭니다. 그 접착제는 생사윤회에도 쓰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생활 속에서도 지금 쓰여 나가는 겁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고, 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상대방과 나하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접착제로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서로 한 그 말은 온데간데없는 겁니다. 접착제는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동적인 걸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만날 때는 어머니 만나는 대로 내가 거기에 삼각으로서 원형을 이루고, 이 삼각심이 원형을 이루고 지금 돌아간다 이 겁니다. 그러면 뜻도 그러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었지마는 행도 그렇게 나오고 말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금방 어머닐 비켜나서 아들을 만나니깐 아버지의 행세로 나옵니다. 요 묘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자동적이면서도 진리적이면서도 이것은 정말 광대무변한 여러분의 묘가 아니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금방 말도 달라지고 행도 달라지고 아,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오신통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무진법문이고 그대로 무진설이고 그대로 무진행이고 그대로 무진 삶의 생동력이 있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광대무변한 뜻을 발휘 못 하고 계발을 못 하고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자기를 방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끌고 나온 자기 주인공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름 자체가 아닌 근본을, 즉 말하자면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행위다 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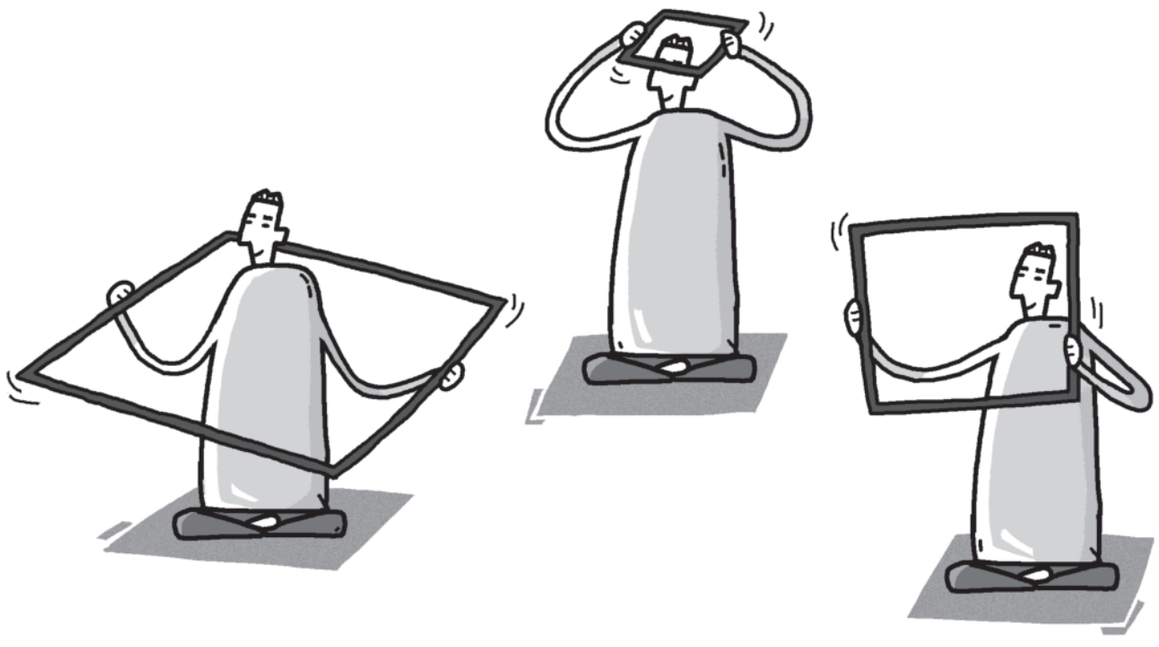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누가 그 무진, 그 광대무변한 법을 "얘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서 뜻으로써 길을 인도해 주겠습니까? 길잡이는 자긴데. 그리고 걷는 사람도 자기고! 콩씨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무는 자기가 콩나무인 줄만 알아요, 네? 콩이 콩나무가 됐는데 콩나무는 콩씨가 제 나무에 붙은 줄 모르고 작년에 씨 심은 그 콩씨를 찾고 있거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의 문제에서 우리는 여섯 번째에, 내가 판단을 하고서 개시한다. 개시한다는 생각이 없이 스스로 자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 뭐, 한다 안 한다가 없이 스스로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말을 안 해 드리고는 또 그 뒤의 말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부모 밑에서 올바르게 길러지는 사람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걷는데, 궤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습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자석처럼 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머니라는 인정, 그게 자석입니다, 자석. 그래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네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인간이라는 자석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는 그 마음이 벌써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철을 모르고, 어른이라도 철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철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자기 중심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패배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난 살아야겠어.' 하고선 잘못된 걸 번연히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배고프니까 저지릅니다. 무댓방 저지릅니다. 죽입니다. 또 착취합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 삶이 국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각국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이 야단들을 하죠.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 그 오신통이라는 자체는 내가 자성을 깨달아서 주인이 돼 가지고 오신통을 내가 부려야 말이지 만약에 내가 내 안의 자성을 찾지 않고 바깥으로만 만날 신을 찾아 돌아다니고 학문으로만 가지고 저거 하고 그렇게 집이 빈 사람들은 항상 끄달리게 돼 있거든. 항상 끄달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들어와도 들어오는 줄 모르고 저기에서 들어와도 들어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법으로나 무법으로나, 하여튼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생명들이나 보이는 생명들이나 모든 것에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끄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을 가눠 가면서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생활을,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니,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만 굴리고 내 안에서 배신하지 말고, 자기 주인공을 믿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않고…. 모두 거기서 나고 드는 것인데, 만법이 일심에서 나고 만법이 일심으로 드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이시여! 아무개 신이시여! 용신이시여! 관세음 신이시여! 무슨 신이시여!' 이 신 저 신 찾다 보니까 이 신, 저 신, 내 신도 잊어버리거든. 허허허…. 아니, 이 신 저 신 찾다 보니까 내 신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신을 근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몸뚱이를 이끌고 가는 내 신발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 신발이 아니라 내 신(神)을 말입니다, 자신(自神)을. 자성신.

그런데 그 말을 하려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신까지 이거 괜히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주인이 없는 집은 귀신, 유체, 유령, 세균, 윤회, 유전 이런 것이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뚱이의 그 모든 생명들이 자기 분야 분야 소임을 맡아 가지고 다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지금 지탱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주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내 이 생명체도 다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그런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삼차원에 기준을 둔다면 중세계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삼차원이기 때문에 이차원이나 일차원에 있는 거를 갖다가 막 집어다가 바로 실험대에 올려놓고서 실험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차원 세계라면 삼차원에 있는 거 막 붙잡아다가 실험대에 안 올려놓겠습니까? 이 모두가, 만약에 오차원, 육차원, 칠차원 이렇게 차원이 있는 탑이 있다면, 십이층 탑이 있다면 그걸 한데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바로 한 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십이층에서 어떤 것이 층층이야?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공했다! 그 하나도 없다! 물감을 여러 가질 갖다 놓고 "어떤 게 진짜 물감입니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 물감입니까? 물감이 지금 열여덟 가지가 있다면 열여덟 가지에서 "진짜 물감이 어떤 것입니까?" 한다면 다 진짜 물감인데 어떤 거를 진짜 물감이라고 해?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이것은 전부 공했다."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세울 수 없으니까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차원이, 계단이 있으면서도 계단이 없는 원인은 아까 물감 얘기 했듯이, 그러한 까닭에 그런 차원이 바로 평등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평등이면서도 그 차원은 엄연히 있고, 우리 살림살이의 차원은 엄연히 있어서 소소영영하게 우리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금 내 몸뚱이를 이끌고 가는 내 자성신을 근중하게 생각하세요

☞ 21면에서 계속

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씀씀이로 쓰이고 있으면서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그 철없는 사람들 얘기 했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딴 혹성이라고 철없는 게 없을까요? 그리고 국방이라든가 또는 정보국이라든가 또는 의학계의 연구 실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라도 갖다가 붙잡아다 실험대에 올려놔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차원 세계의 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지만 사차원은 이 삼차원에 자기 문 드나들듯 해요. 그렇다면 사차원, 오차원에서 드나들어. 그렇다면 사차원에서는 삼차원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다 드나들게 돼 있어. 권리가 있어. 사차원이라는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 자세히, 그것도 보여야 보여 주는데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 어느 때에 모두 병이 많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우리 에너지를 작간에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빈집인데, 뭘! 주인이 없는 집에서 좀 뺏기로서니 뭐,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는데 뭘 그래.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내가 벌이를 해서 먹고살 양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스승이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이기 때문에, 나는 그 스승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스승님들한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무지렁이가 이런 뜻을 알았겠습니까? 난 조금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무학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무학이 아니었더라면 그 진실성이 없었고 진실이 없었더라면 광대무변한 이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 그것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즉 말하자면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이 없다는 얘깁니다. 아래에서는 아래대로 우리한테 주먹에 매여 있으니까 항상 이익을 못 보고 패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아래 하의 동물들은 우리 사람의 손에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막 악을 악을 써도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 소리를 하거나 말거납니다. 그냥 아랑곳없습니다. 붙잡아다 놓고 모습이 개고, 모습이 소고 말이고 토끼고 쥐고, 모습이 그러하니까 그것은 아예 우리 삼차원에서는 갖다 집어다가 실험대에 놓고서, 실험을 해야만 하겠으니까 말입니다. 실험대에만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서 파악을 해서 그걸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 사람을 놓고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사람도 놓고 연구는 하지마는 실험대에 올려놓고 연구는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이 우주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셋씩이나 있는데 그 셋 뒤에는 그렇게 방대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점에서 나온 것인가요? 요 한 점에서 나온 겁니다, 한 점. 그 방대한 게. 우리 몸뚱이도 지수화풍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수화풍이 한데 모이면 얼마나, 에너지와 가스가 얼마나 그 힘을 발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두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게 몸뚱이가 집이라면 그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생긴 것이 집이 생기니까 생긴 겁니다. 모두가 근원 없는 물질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몇 부분에 소임자가 있고 바로 회장이 있단 말입니다. 회장, 사장, 공장장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육 개국의 공장장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자디잔 건 빼고도. 그렇듯이 오대양 육대주에 전부 이 문제가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각처 각급에서 앞에는 앞에대로 궤도를 올바로 돌고 있는 거는 우리를 탐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화해서 창조가 됐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나. 지구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오지마는 만약에 오신통에 말려서, 예를 들어서 노예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되고 잘됨이 없이 무조건 달려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에너지를 뺏기는 수가 허다히 많습니다. 우린 여기에서도 에너지를 뺏기지마는 전체 그 힘 있는 데서 아주 멀리서도 딱 잡아들면 빼 가지 안 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물질만 가지고 얘길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안락사가 있었습니다. 아, 부처님께서는 안락사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그건 무명을 벗겨 준 거지 생명을 죽인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무명 때문에 진짜 생명과 그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열 식구를 다 희생을 시킬 때 그때 안락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안락사를 할 때에 무명만 친 것이지, 그것은 환토를 시키고 살려 준 거지 죽인 게 아닙니다. 건진 겁니다. 그런 자비를 가지고서 안락사라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안동답답이로 강도가 와서 칼로 찌르듯이 생각하고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삼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경향이 생기느냐? 삼차원의 지금 이 공기라든가 이러한 모든, 즉 말하자면 뭐라고 이름을 할까? 여긴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름은. 이 생활의 모든 거에, 공기를 가지고 우리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자기네들은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추락돼서 여기에 떨어졌다면 자기 호흡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르지마는 그 행하는 것도 다르고 살림살이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여기 지구의 이 생태와 거기의 생태가 모든 것이, 살고 있는 그 근본이 다른 게 아니라 사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녹음 안됨) 우린 요런 거 한 그릇 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는데 거기서는 열 그릇이 한 그릇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배를 채웁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태가 죽어지니까 그때는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성에 따라서 다른 부분의 형태가 있고 다른 부분의 마음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선이 있는 것은 여기 지구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성군, 즉 말하자면 성주가 부처님 자린데 성주의 그 뜻을 두루 다 서로 통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자유자재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벌써 저기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도 다닐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몸이 열둘도 되고 백도 되고 천도 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것도 하나도 없을 때는 없어도 된다. 또는 하나가 될 땐 하나가 된다. 내 씀씀이에 의해서 그것은 사용된다." 이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어, 그래." 그 모습은 형태지 진정이 아닙니다. 그 진정을 내 진정과 더불어 체인지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또 체인지를 하고 내가 그리로 들어가느냐 그쪽을 잡아다녀서 나한테다가 체인지를 하느냐 이게 문젭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저쪽 거를 끌어 잡아당겨 나한테 넣는다면 또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아만이 있으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주고, 아만이 없고 참 겸손하다면 그쪽을 나한테다 넣고, 이렇게 상황 따라서 물 흐르는 것처럼 순리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고 있죠.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이 있다면 학을 다 버리고선 그 백지를 알아야, 백지를 알고 난 뒤에 그 학은 나중에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지를 모르고서야 어찌 그 학을 올바르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 이거 낱낱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궤도를 도는 이 혹성, 외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고요. 외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것뿐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태양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전체 한데 합쳐서 그 근본이 어떠한 게 근본이냐. 그렇게 광대하고 크건만 그 근본이 바로 내 한 점의 마음에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것이, 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져서 그것을 이루고 이루고 하면 큰 성을 또 이루죠. 끼리끼리들 모여서 한 팀이 된다면 또 그게 성을 이루는 거죠.

> 콩이 콩나무가 됐는데
> 콩나무는 콩씨가 제 나무에 불은 줄 모르고
> 작년에 씨 심은 그 콩씨를 찾고 있으니
>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도 끼리끼리들 살죠? 아, 그게 끼리끼리들 있습디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끼리끼리, 정보원은 정보원대로 끼리끼리, 지게꾼은 지게꾼대로 끼리끼리, 소 잡는 사람들은 소 잡는 대로 끼리끼리, 아니, 이건 전부 끼리끼리라. 그리고 친구들도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야. 이게 아닙니까?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대로 끼리끼리, 노인네들은 노인네들대로 끼리끼리. 이것은 누가 막지 못합니다. 이거는 자연법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칙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한 점의 마음으로서에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만법이 어디에서부터 나가느냐 하면 마음 한 점에서 그 모든 작용을 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컴퓨터, 오신통이 모두 한 점의 마음에 있다 이거야. 오신통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자동적으로 같이,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눈이 가고, 코 간 데 입이 가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흡수돼서 돌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무겁게 짊어지지도 않고 이럽니까.

여러분은 억겁 전서부터 나오면서 노비 문서를 갖다가 짊어지고 말입니다, 여기서 저 달나라 갈 만큼 그냥 차근차근히 쟁여서는 무겁게 짊어지곤 그 습을 한 번도 떼어 놓지 않고, 그래도 그 자기 노비 문서가 제일이라는 데요. 자기라는데요, 뭐. 그걸 짊어지고 그래도 무거운 체도 안 하고 그게 좋다고 웃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는 거래요. 왜 자유권을 갖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하나하나 끄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앞에 창살이 없는 것 같습니까? 창살이 있고 문지방이 높고 천야만야한 산봉우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기가 막힐 때가 있고 불이 일어날 때가 있고 건너가지 못할 때가 있고 야, 이건 한두 건이 아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외성에서의 그것도 한 개로 따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즉 말하자면 5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10도까지 뜨겁고 그 기운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요만한 기운을 가졌다면 그 사람네들은 이만한 기운을 가졌다 이겁니다. 기운이 그렇게 많은데 기운 없는 사람이 지지 뭐, 별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할 거 같으면 그 기운 이상 가게 다 자비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 여기서도 살고 거기서도 살고, 거기서도 사니까 나 아님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그것을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그런 태양들과, 어저께도 얘기했지마는 대의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이 외성이지마는 외성을, 또 이 혹성을 도는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각각 각처에서 어떤 것은, 딴 혹성에 있는 것은 똑 고슴도치같이 생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얘길 하겠습니까마는 차근차근히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그런 상태를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떡할 수가 없죠, 뭐. 믿거나 말거나죠, 뭐. 허허허…. 할 수 없는 거지만 말입니다.

생각을 잘해 보신다면, 우리가 여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서 안다면 그것이 알아집니다. 여러분이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도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오기 이전에는 이름을 안 붙였을 거예요. 나는 이름을 몰라. 이 말을 할 때는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어.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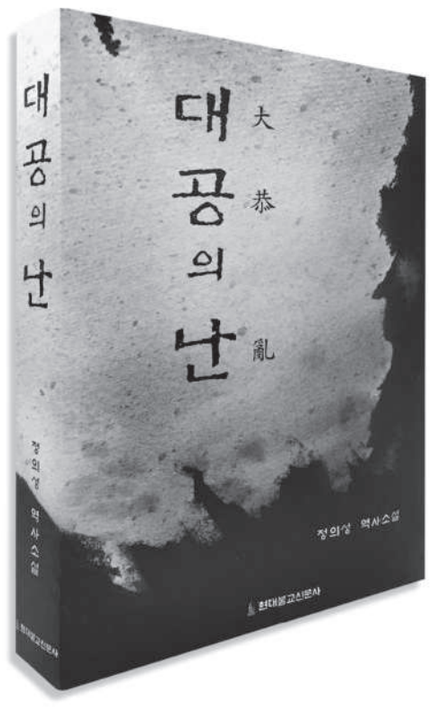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6년 3월 2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 현불 논단 |

먼저 용서하고 당당해지길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2017년 美서 시작된 '미투' 운동
한국도 커다란 사회 변화로 부각
학교폭력 · 부모 빚 등 양상 다양

제도, 조직 보호 못 받은 약자들
미투로 가해자 고발 · 처벌 추진해
징벌 통한 사회정의 구현 '바람직'

뜬소문으로 타인 무고하는 단점도
학폭 등 청소년기 저지른 잘못을
인민재판처럼 심판도 옳지 않아
화해 · 용서 나아가야 올바른 미투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자유와 인권을 국가이념의 최고 가치로 두고 있다고 생각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다. 이 운동은 급속히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우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미투 운동으로 커다란 사회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각계각층의 성폭행과 성희롱 사건들이 대중에게 노출되며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다. 격렬한 미투의 광풍은 비단 성폭행과 성추행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부모가 과거에 빚을 지고 갚지 않은 '빚투'와 청소년 시절의 학교폭력을 고발하는 '학폭 미투'와 '운동선수 미투', '연예인 미투' 등 다양한 형태의 미투가 날마다 새로운 뉴스의 머리를 장식하곤 한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조직 내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투를 통해서 가해자를 고발하고, 그들로부터 사과와 참회를 받아내고 늦으나마 법에 따라 처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를 편하게 하고 가해자를 징벌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우리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밀하게 꾸며낸 거짓으로 유명인을 공갈 협박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전해들은 이야기나 근거가 불확실한 뜬소문으로 타인을 무고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쪽의 기억과 입장만으로 상대방에게 죄를 묻는 일방적인 입장을 공개해서 왜곡과 오해로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특히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 그룹 등 단체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었던 시대적이며 환경적인 문제의 무게를 함께 부담해야 함에도 개인과 일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와중에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사람을 선발할 때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겠다는 뉴스를 보며 안타까운 생각에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다.

청소년들의 특성은 왕성한 호기심과 도전의욕이고 이때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하게 된다. 청소년기를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의 격동하는 감정과 행동이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와 같은 것을 말한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발생한 문제들이 그 시기에 드러나 해결이 되었거나 또는 해결이 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러 대중에 밝혀진다고 해서 인민재판 하듯이 당사자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좋은 방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라고 본다.

상과 벌은 그 공로와 잘못에 따라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 특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기의 잘못이나 환경과 생각이 달랐던 과거를 지금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질풍노도와 같은 대중의 여론으로 징벌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일일 수 있다.

'털어서 먼지가 나면 대중에서 지워버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접근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상처받은 사람은 스스로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당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미투는 징벌만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용서로 가도록 해야 한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이주노동자와 장례문화

스리랑카의 장례문화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70% 이상이 불자인 스리랑카의 불교 장례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리랑카 장례문화는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상갓집 앞에 흰색 천을 건 줄을 매어 상갓집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 흰색 깃발을 걸도록 하며 또한 이 흰색 천이 많을수록 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조문객들은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며 담소도 나누지만, 스리랑카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자와 홍차, 음료수를 준비하며 만약 식사 시간이라면 음식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든 준비를 마을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상갓집에서는 일주일간 요리하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장례식 후원단체(maranadhara samitiya)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과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장례일은 한국과 비슷하게 간혹 5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3일장을 하며 장례 방식은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스님이나 귀족은 화장을 하지만 그 외의 일반인은 매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 보통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든지 운동장을 빌려 그곳에서 화장을 합니다. 요새는 전기 화장터에서 시체를 소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예외적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형이나 누나가 있는 경우에는 화장은 금기하며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례를 금기시하는 장례 풍습에 의해서 만약 3일장의 마지막 날이 화요일과 겹친다면 자연스럽게 2일장이나 4일장으로 변경됩니다.

장례 의식도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스님이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빈소에서 경을 외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사망 소식을 접한 스님이 먼저 고인의 집에 들러 상황을 살피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후 발인해 화장이나 매장하는 장례식 행사를 치러지는데, 이때 먼저 스님들이 장례법회를 합니다.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 흰색 천과 공양물을 승가에게 올립니다. 축원하며 죽음의 명상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법회를 참여하는 스님들이 모두 담장 밖(Tirokutta:띠로꿋따)경을 독송하게 됩니다. 2~3시간 이뤄지는 장례식을 마치고 고인의 유언을 듣습니다. 도시에서는 곧바로 매장하고자 한국처럼 운구차로 이동합니다만, 시골 마을에서는 상여를 직접 손으로 들어 어깨에 메고 운구합니다. 이런 장례 풍습이 한국에서는 사라졌지만 스리랑카의 장례문화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제로 장례문화를 소개한 것은 지난해 한국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을 함께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 업무 중 팔이나 다리 등 신체 부위의 상해를 입거나 다양한 질병이나 질환으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스리랑카 청년들이 20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의 장례식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하위하라 사원에서는 지난 2월 6일 한국에서 숨을 거둔 스리랑카인들의 영을 추모하기 위해 대념처경을 독송하고 영가들에게 공덕을 회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 영가 이름으로 LED 등을 밝히고 기일마다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성보博 학예인력 확대 환영한다

2000년대 초반 성보박물관들은 사찰 문화재 소장 · 관리를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항온항습 시설과 같이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지만, 정작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관계자들이 '성보박물관 전문 학예인력 확대'를 숙원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점 다량소장처 학예 인력 배치사업'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지원하는 문화재 다량소장처에 등록된 사찰 성보박물관 · 보장각 47곳 중 30곳에는 전문 학예 인력이 없다. 대부분 성보 문화재를 보존 · 관리할 필요가 있어 수장시설이 설치됐지만, 사찰 재정이 전문 인력까지 운영하기는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인력 배치 사업을 통해서는 4개 권역, 8개 운영기관이 선정됐고 운영기관들은 각 1명의 학예 인력을 국고 보조를 받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약하지만, 권역 내 사각지대에 놓인 사찰, 문중 소장 문화재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하드웨어적 지원만 했던 문화재청이 학예 인력 확대라는 핵심적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것도 의의가 크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권역별 학예 인력을 향후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이제 시작된 성보박물관 등 문화재 다량소장처 학예 인력 강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기대한다.

수미산원정대, 불교 중흥 '초석'

수미산원정대가 2월 27일 27명의 결사대를 중심으로 출범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불교 중흥을 위한 서원을 남겼다.

수미산원정대는 2000만 불교교세 회복을 위한 불자배가운동을 전개할 핵심 인적 네트워크의 다른 이름이다. 5월부터 불자신도교육을 비롯해 수행과 성지순례 등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불교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출가자 급감, 신도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 위기는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다.

신도 감소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이로 인한 종단의 재정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그동안 불교계는 2000만 불자를 이야기 했지만 700만 불자의 결과를 받아든 2015년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길을 걸으면 만나는 수많은 선교행위를 볼때는 무례함을 느끼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열성적인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불교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수준에서의 전법 포교에만 머물러 왔다. 즉, 사찰로 오는 이들을 불자로 만드는 데 주력해온 것이다. 이제는 찾아가는 불교로 변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서 불교를 전하는 적극적인 불교로 변화하고, 앉아서만 수행정진하는 데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바뀌어야 한다.

불교는 전세계 종교 중 종교를 만든 이가 스스로의 가르침 앞에서 낮추고, 겸손했던 유일한 종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과 집착과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시되었고, 선정과 함께 불교 수행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감동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사회의 공감을 이끌고, 불교를 새롭게 하는 일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惠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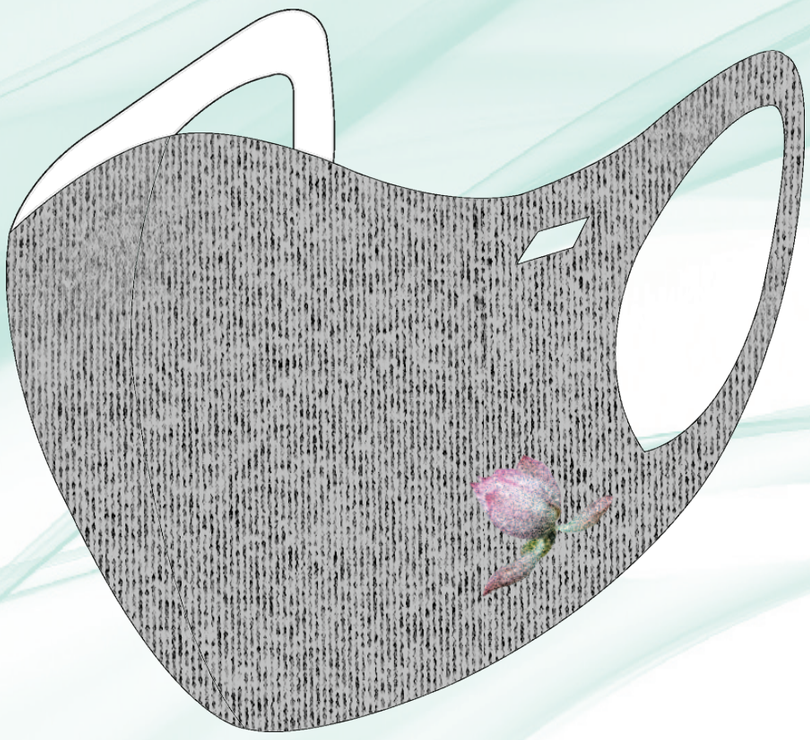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소취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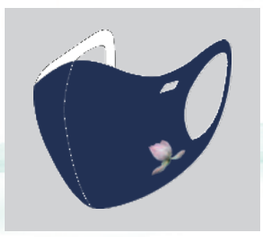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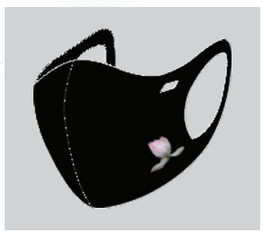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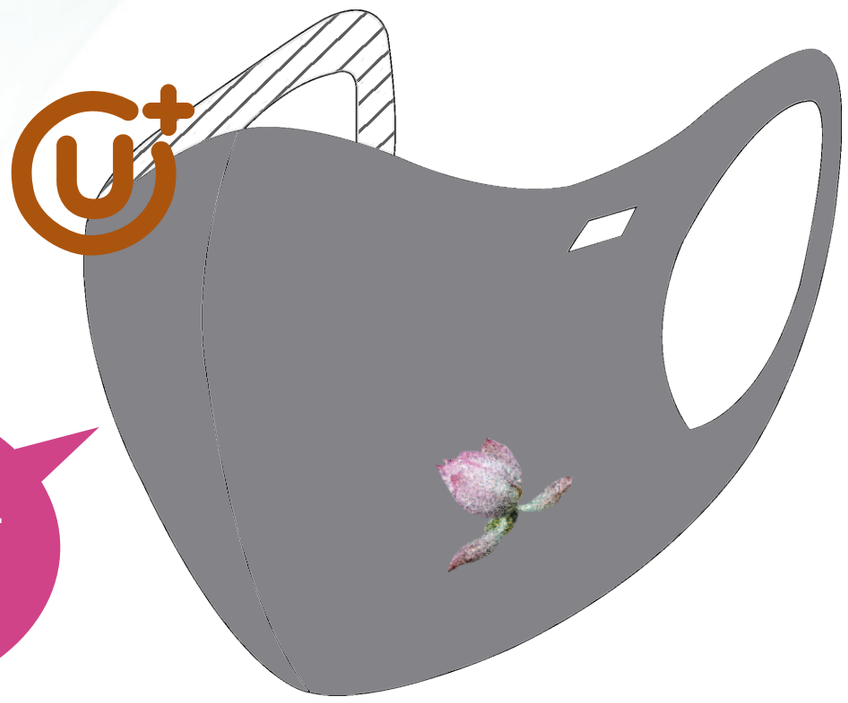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